소년단

19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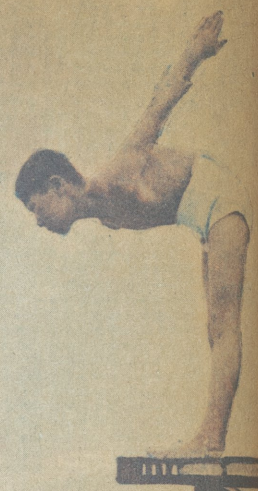
흥겹게

바다는 손짓해요

박근 시

서해라 서해바다 경치도 좋-고
동해라 동해바다 물'결도 곱-지
파도우에 갈매기 떼 춤을추면은
우리 맘도 바다우-에 훨훨날지 요

2. 리순신 장군님이 지키신 바다
인민군 누나 오빠 지키신 바다
갈바람 새'덜기도 겁을 모르는
우리들은 앞날의 바다의 용사

3. 서해에 살아 볼가 동해에 살가
서해도 좋지만 동해도 좋지
은금보화 끝이 없는 우리 바다는
어서가자 빨리오라 손짓하지요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0년 7호 내용

로동당 만세!

(제7회)

박 세 영

영광스런 우리 공화국

영광스런 우리 공화국은
삼천만의 뜻으로 이룩되였네.
조선 인민이 처음 가져보는 이 정권
마음 속에도 자유의 태양 솟았네.

인민을 위한 이 정권 세우려
북반부 인민들은 인민의 대표 뽑았네.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로
민주 건설 보람을 안고 뽑았네.

미제는 대포와 땅크로 유권자들을 내
몰때
인민은 선거장 들부시며 싸웠는데

놈들은 남조선 단독 선거 단독정부로
미제의 앞잡이 허수아비 정부 꾸미였
네.

허나 남반부 인민들도 미제 총칼 무
릅쓰고
최고 인민 회의를 선거했으니,
영예롭다, 만고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
김 일성 원수를 수상으로 모신 나라.

오각별 남홍색 공화국 기'발은
인민의 희망처럼 창공에 휘날렸네,
아세아 싸우는 나라들의 등대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영광에 찬 우리 조국은 세계에 떨치
였네.

빛 나 는 두 해

모든 공장과 일터를 더 잘 꾸리고,
자라나는 힘 더 다우치며
사람들 먹고 쓰는 물건 넉넉케하도록,
당은 두 해의 인민 경제를 꾸미였다.

자랑스런 이 계획 이룩되면
우리 힘으로 밑 바탕을 다지는 것,
근로하는 사람들 모두 행복하리,
통일되면 남조선 형제들도 돕게되리.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내고
믿어운 일'군들을 갖추고 있고,
해방의 나라 쏘련의 원조 두터우니
두해의 인민 경제 빛나게 이룩하리.

당원들에게 보낸 당 중앙의 편지는
숨어 든 원쑤놈들 덜미를 잡도록
당원들의 눈 불'빛처럼 밝혔다.
증산 경쟁으로 슬기로움 떨치게 했다.

낡은 생각으로 굼뜨게 보살피던 일
그런 버릇 없어지고 경쟁을 무었다
하나로부터 집단 경쟁에로
원수님의 가르치심 받들어 나섰다.

한 아동 혁명 단원이 걸어온 길 (7)

글 박응호　　　그림 유환기

1) 공청 가맹을 앞둔 원주는 밤'잠도 변변히 자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가 걸어 온 길을 곰곰히 돌이켜 보았고 자기의 부족된 점들을 알아 내기에 애썼다.

《내가 과연 영예로운 공청원이 될 수 있을가?… 나는 아직 어리고 약하다. 혁명을 위해 더 훌륭히 싸울 수 있는 굳센 마음을 길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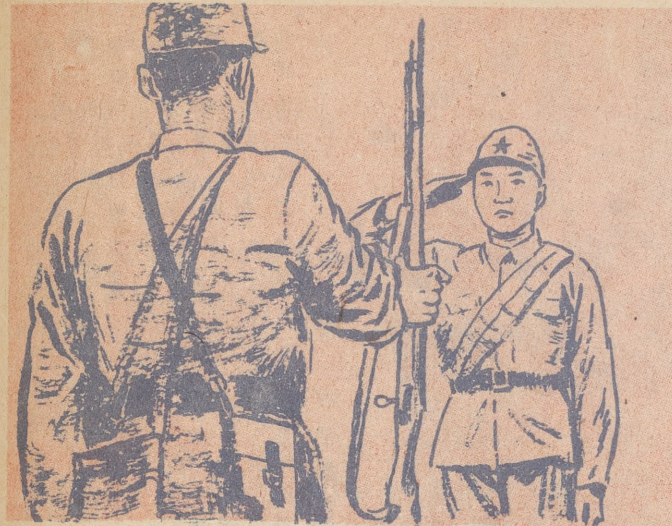
2) 원주의 상처가 다 나았을 때 드디여 공청 회의가 열렸다. 현칠 형님은 원주가 걸어 온 길과 그가 혁명을 위해 어떻게 싸웠는가를 여러 공청원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로 끝을 맺었다.

《원주 동무는 반드시 공청원의 영예를 지켜 나가리라고 나는 굳게 믿소. 원주 동무는 훌륭한 혁명 전사로 자랄 것이요!》

3) 원주는 여러 공청원들 앞에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공청원으로서의 맹세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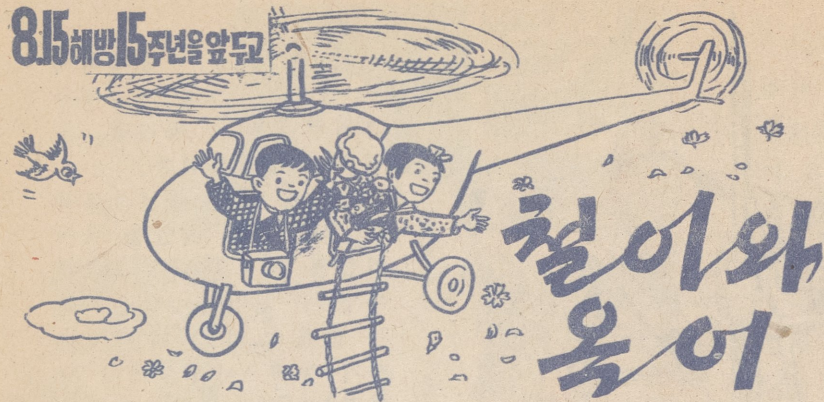
《만일 나를 공청에 받아 준다면 나는 김 일성 장군의 슬기로운 혁명 전사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것입니다. 혁명이 주는 임무라면 나는 어떤 어려운 일에도 앞장 서 나아가겠습니다.》

4) 슬기로운 공청원이 된 원주는 그해 가을에는 그처럼 바라고 바라던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중대장 현칠 형님으로부터 총을 받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총을 쥐는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자기 총에 아우성치며 쓰러지는 왜놈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였다.

5) 전투의 나날은 공청원 원주를 더욱 억세인 혁명 투사로 길러 내였다. 그는 전투가 벌러질 때 마다 공청에 가맹하던 때에 다진 자기의 맹세를 생각하군 하였다. 그는 적탄이 빗'발치는 맨 앞장에 서서 앞으로 나아갔다.

6) 원주가 가는 길은 곧 조국으로 가는 길이였다. 원주네 부대는 김 일성 장군의 지휘 밑에 조국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장백으로 진출하였다. 가렬한 전투를 거듭하며 장백으로 향하는 원주의 가슴에는 어느 사이엔가 나서 자란 정든 고향이 아련히 떠올랐다. 그리고 광복된 조국의 래일의 모습도…

(다음호에 계속)

8.15해방15주년을 앞두고

철이와 옥이

철이—소년단원 동무들! 옥이와 나는 이번에 우리의 명절 8.15 해방 15주년을 앞두고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살림을 보려고 우리 나라 곳곳으로 려행을 떠났어요.

우리는 가는 곳 마다에서 힘 있게 연기를 뿜는 공장 굴뚝들, 키돋움을 하며 현대적인 새 주택들이 일어 서는 도시들, 오곡이 푸른 바다를 이룬 들판들을 가슴 흐뭇한 마음으로 내려다 보면서 흥겨운 려행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업 도시인 흥남 본궁 상공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인민들에게 질 좋은 옷감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하여 비날론 공장 건설을 보다 빨리하자!》라고 쓴 수 많은 프랑카트들이 나붓기고 수 많은 형님, 누나들로 건설장은 와글와글 끓고 있었습니다.

성미가 급한 옥이는 《여기가 비날론 공장 건설장이구나 빨리 내려 가 보자!》하고 나를 잡아 흔드는 것이였어요.

헤리꼽타에서 내린 우리는 공장 건설을 직접 지도하고 계시는 리 승기 박사를 만났습니다.

《비날론을 연구해 내신 리 승기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떠들며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은 기쁜 얼굴로 우리를 반겨 주셨어요. 리 승기 선생님은 한 눈에 바라보이는 본궁 화학 공장 카바이트 전기로를 가리키며《저기서 나오는 카바이트가 얼마 후이면 질기고도 좋은 옷감 비날론이 되여 쏟아지게 된다. 비날론 1만 톤이면 4,500만~5,000만 메터의 천을 짤 수 있는데 그것은 지구 주위를 한 번 둘러 감고도 남을 정도지…》하고 매우 흐뭇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옥이와 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참 굉장하구나.》하고 감탄했습니다.

리 승기 선생은 빙그레 웃으면서 《정말 굉장하지, 우리 북반부에서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 사람에게 차례지는 천이 해방 직전의 114배에 달했는데 래년부터는 이 비날론 공장에서 2만 톤의 비날론을 더 생산하게 되니 천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된다. 그래 지금 우리들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옷감을 보내기 위해 이 공장 건설을 더 빠른 기간내에 끝내라는 당의 부름을 받들고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더우기 헐벗고 굶주리는 남반부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더 앞당겨야 하지 않겠니.》

새로 일떠서는 비날론 공장 건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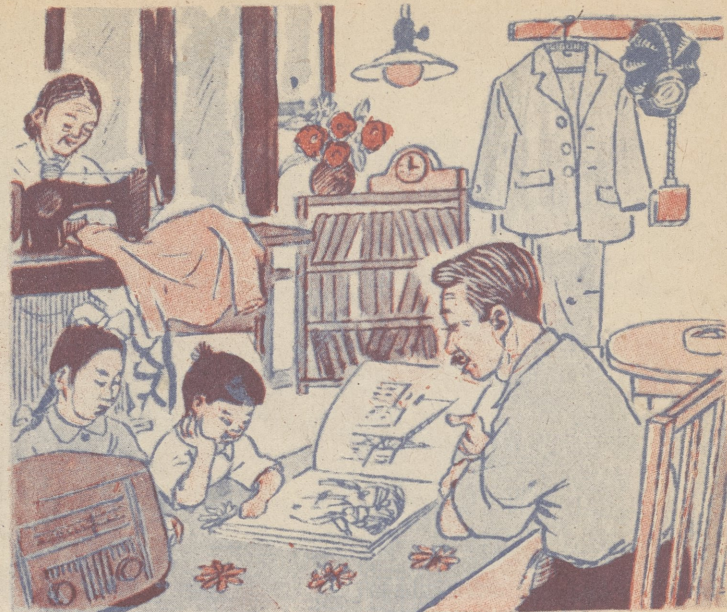
《그럼 조국이 통일되면 남조선 소년들에게도 우리처럼 좋은 학생복을 해주게 되겠지요》

《암 그렇구말구, 그러기에 지금 우리 공장 뿐 아니라 신의주 방직 종합 공장도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지 않니, 아마 너희들이 이제 가면 볼 수 있을게다.》

우리는 곧 신의주 방직 종합 공장에로 떠났지요.

옥이—우리는 리 승기 박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신의주 방직 종합 공장 건설장에 와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언제나 공장이 크게 건설되는지 한개 도시가 새로 생기는 것 같았어요. 이 공장에서도 2~3년 후이면 3억 메터 이상의 천을 짤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 여기에다 평양 방직 공장, 청진 방적 공장, 녕변, 박천 견직 공장, 개성 방직 공장들과 그밖의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나오는 천들을 모두 합하면 김 일성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5억 메터의 천이 나올 날은 멀지 않았지요. 이렇게 되면 인구 한 사람 앞에 50메터씩 차례지지요.

우리는 이번엔 우리 나라 식료품 공장들도 돌아보았지요. 신포 어류 통조림 공장, 룡성 육류 가공 공장을 비롯하여 그밖의 크고 작은 지방 식료품 공장들을 모두 돌아 보았지요.

여기에서는 모두 인민들의 입에 맞는 맛 있는 식료 가공품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참 우리 나라는 넉넉해지고 인민들의 살림은 늘어만 가는구나》이렇게 생각하며 우리 나라 로동자들의 살림부터 보자고 로동자 지구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 명천 상공을 날고 있는데 눈 앞에 큰 도시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지 않겠어요. 《옳지 우선 여기에 한 번 내려 보자.》하고 내려다 보니 예가 고참 탄광 마을이였어요. 해방전에는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무너져 가는 오막살이에 거적문을 치고 살았다는 이 탄광 마을에 지금 3층 아빠트와 아담한 단층 벽돌집 문화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 찼고 식당, 상점, 리발소, 탁아소, 유치원 시설들과 구락부, 야간 정양소 등 문화 휴식 시설들이 자리 다툼이라도 하는듯 줄지여 서 있었어요.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여서 온 탄광 마을이 명절날처럼 흥성했어요. 구락부로 가는 사람들, 상점으로 가는 사람들, 아버지를 따라 체육 경기 구경을 가는 아이들 모두다 행복에 넘친 얼굴들이였어요. 그 누구를 보나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같지 않았어요. 모두 멋진 양복 차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탄광에서 32년을 일하였다는 황 최금 아저씨네 집을 가보게 되였어요.

아저씨네 집은 3간방 벽돌집이였어요.

아저씨는 라디오 앞에서 아이들과 같이 화보를 보시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비둘기표 재봉기에 마주 앉아 아이들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우리를 보자 반가

원화 농업 협동 조합에 일어 선 문화 주택들

히 맞아주면서

《해방 전에야 탄부들이 못사는 사람 축에서도 제일 못살았지 탄광 앞에선 밤낮 사람이 죽어 나가니 어느날 죽을런지도 모르고 일하면서 하루 살이 신세라고 한탄만 하던 지난날이 꿈만 갈지.

지금 이처럼 행복한 것이 다 누구의 덕이겠니. 아들 딸들을 공부시키는데 학비 걱정을 모르지, 게다가 양복과 외투, 학용품 같은 것까지도 헐값으로 내주지, 또 병은 무료로 치료하구, 참으로 우리 당이 고맙고 우리 제도가 이 얼마나 좋으냐?》

《정말이예요.》우리는 저도 모르게 손'벽을 쳤어요.

아저씨네 집에는 라디오, 재봉침, 옷장, 찬장은 물론이고 벽에는 좋은 모직 양복들이 걸려 있지 않겠어요.

참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번에는 농촌으로 가 보자고 약속했어요.

철이—옥이 동무가 로동자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신이 나서 했지만 농업 협동 조합 마을도 정말 굉장했어요.

관개 수로가 그물처럼 뻗고 벼가 푸르게 바다를 이룬 열두 삼천리'벌을 흐뭇한 가슴으로 내려다 보며 날고 있는데 벌판한 가운데 새로 일떠선 《도시》가 보이지 않겠어요.

내려다 보니 예가 바로 평남 순안군 원화 농업 협동 조합마을이였어요.

《야! 여기가 원화 농업 협동 조합이였구나》 하고 우리는 한참 떠들었어요.

농촌에 이처럼 좋은 아빠트들이 줄을 지어 일어섰을 줄이야 미처 알지 못했거든요. 구락부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랐어요. 유치원, 탁아소, 목욕탕도 참말 멋이 있었어요. 이 마을 아저씨들은 하루 일을 끝내고는 매일 같이 큰 구락부에서 영화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집집마다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시는 오 순재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생활이 어떠나시요?》하고 물었더니 《거야 말할게 있니, 아 그전 처럼 농사 짓는데 물 걱정이 있겠니, 기계가 힘든 일을 해주니 노력에 대한 걱정이 있겠니, 해마다 풍년이 들고 아 이런 궁궐 같은 아빠트에서 살게 됐으니 좋다는 말이야 어데다 비기겠니, 김 일성 수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기와집 쓰고 사는 집이면 부자라고 했는데 우리 살림이 그렇게 됐구나 부러울게라는게 이제 뭐 있겠니!》 하고 하시면서 마을 자랑을 하시는 것이였어요.

안 그렇겠어요! 15년 전만 해도 물걱정에 간장이 마르고 겨우 지어 놓은 곡식을 지주놈들에게 깡그리 빼앗기고 쌀고장에 살면서도 배를 곯던 그 지긋지긋한 지난 날을 생각하면 말이예요.

우리는 이번 려행에서 우리가 가지고 떠난 해방 전 낡은 지도 우에 해방 후 15년간에 새로 생긴 수 많은 도시와 공장들과 저수지들을 그려 넣기로 했습니다. 해방 전에는 하나도 없었던 대학 37 개까지도 그려 넣으려고 했으나 우리가 가지고 떠난 지도에는 다 그려 넣을 수가 없었어요.

《야, 우리 북반부는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새 도시가 일어 서고 공장이 그물 같이 덮이구》옥이와 나는 이렇게 다시 감탄하며 정신 없이 지도를 들여다 보다가 문득 밖을 내다 보았더니 어느새 분계선에 이르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급히 헤리꼽타를 세웠어요. 그리고 만원경을 척 꺼내여 남조선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서울 거리를 바라보니 미국놈들과 경찰놈들이 득실거리는 가운데서 인민들은 계속 용감히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민들은 피의 항쟁으로서 리 승만 역도를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냈으나 그 자리에 들어 앉은 미제놈의 앞잡이 허 정이도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허 정 일당은 물러 가라! 썩은 《국회》를 즉시 해산하라! 고 하면서 곳곳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굶주리며 사는 공장 로동자들은 임금을 올리라고 싸우고 학교에서는 미국놈의 앞잡이 교원을 내몰기 위해 용감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거리에서나 싸우는 인민들의 아우성 소리였습니다.

파괴된 거리엔 판자집과 오막살이가 들어 차 있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무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이 무려 660만 명이나 되다니 안 그렇겠어요!

농민들도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곡식을 세금이요, 소작료요 해서 80% 이상을 놈들에게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 이리 저리 헤매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에서 이런 농민은 300만 명이나 된답니다.

우리와 같은 소년들은 배움의 길을 빼앗기고 구두 닦기가 아니면 깡통을 차고 거리를 헤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북조선에선 돈이 안들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다니 정말 가고 싶구나》 하고 모두 떠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을 반대해서 용감히 싸우고 있었어요.

미국놈들이 총칼로 위협하고 있었지만 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은 리 승만을 몰아낸 그 기세로 더욱 세찼습니다.

우리는 막 달려 가서 남조선 형제들을 구원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만날 수 없으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살 조국 통일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이를 위해 끝까지 용감히 싸우리라고 생각하면서 기수를 돌렸습니다.

동무를 이렇게 도왔다

영복 동무는 《소년단》에 실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해 주고 있다.

—평북 신의주 동면 중학교 단 제 8분단에서—

조 병 권

최 정주 동무는 넘치는 기쁨으로 하여 높뛰는 가슴을 안고 자리에서 일떠섰습니다. 그는 방금 분단 모임에서 며칠 후에 진행될 소년단 입단 맹세를 위한 단 대표 회의 분단 대표로 추천 되였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러한 축에는 들 념도 못했던 그였으니 기쁘지 않겠어요.

요즘 정주 동무는 이런 기쁨을 자주 느끼군 합니다.

얼마전 분단에서는 《오늘의 우리 고향》이라는 이야기 모임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모임을 준비하기 위하여 분단에서는 몇 동무를 뽑아서 신의주 제지 공장과 신의주 방직 기계 공장에 견학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웅장하게 일떠서는 모습과 8.15 해방 15주년을 맞으며 더 많은 생산을 내기 위하여 힘쓰는 아저씨들의 투쟁 모습을 알아 가지고 와서 동무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도 분단 위원회에서는 정주 동무를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뽑아 보냈던 것입니다.

분단 위원회가 정주 동무에게 이처럼 영예로운 과업을 주기 시작한 것은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학습한 후부터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정주 동무를 이런 일에 참가시키려고 생각은 커녕 락후한 동무라고 비판 주면서 믿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52명의 분단 동무들이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 생활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지만 정주 동무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분단 총회에서도 뺑소니 치는 것을 보통 일로 생각했고 결석과 지각을 자주하며 학습에 태만을 부리였습니다. 가끔 소년단원답지 못하게 행동하여 분단의 영예를 더럽혔습니다.그래서 분단은 정주 동무 때문에 항상 말을 들어 왔던 것입니다.

열성자들의 마음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 회의 결정 내용을 학습하면서 정주 동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의논 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그가 소년단 생활에서 영예감을 가지도록 하는 일을 많이 조직해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정주 동무는 앞으로 소년단 생활에 잘 참가하며 자기도 분단을 위하여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지며 밖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분단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모임에는 정주 동무를 비롯한 분단에서 《말성'군》으로 불리우는 김 정일, 장 세갑, 리 해규 동무들도 참가 했습니다.

분단 위원장이 먼저 분단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가고 제의 했습니다. 그러자 정주 동무가 선뜻 자리에서 일어 섰습니다.

《내 생각에는 반실을 잘 꾸리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반 생활을 재미 있게 조직하면 좋겠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정주 동무가 내놓은 의견을 대단히 찬성했습니다. 정주 동무는 자기가 내놓은 의견이 그처럼 동무들에게 찬성 받은 것이 몹시 기뻤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정주 동무네 반에 소년단 반실을 꾸릴 과업을 반장 동무와 정주 동무에게 주었습니다.

정주 동무는 반실을 꾸리는 일에 열성적으로 참가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미 있는 책들도 모두 반실에 가져 왔습니다. 이리하여 제 3반은 훌륭한 반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분단 위원들은 3반에 자주 나와 반생활이 흥미 있게 진행 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3반에서 반실을 훌륭히 꾸린 다음날이였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속보판에 《이 모범을 본받으라!》라는 큰 제목 아래 반실 꾸리는 일에 모범적으로 활동한 정주 동무의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때마침 속보판으로 갔다가 그 내용을 읽고 난 정주 동무는 기쁘기도 하고 어쩐지 겸적하기도 하여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아름다운 행동을 더 많이 해야 하겠다고 혼자 마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 정주 동무를 잘 돕도록 과업을 맡은 김 영복 동무는 그의 학습을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잡지 《소년단》의 《행동의 거울》과 《소년 신문》의 《붉은 넥타이》에 실린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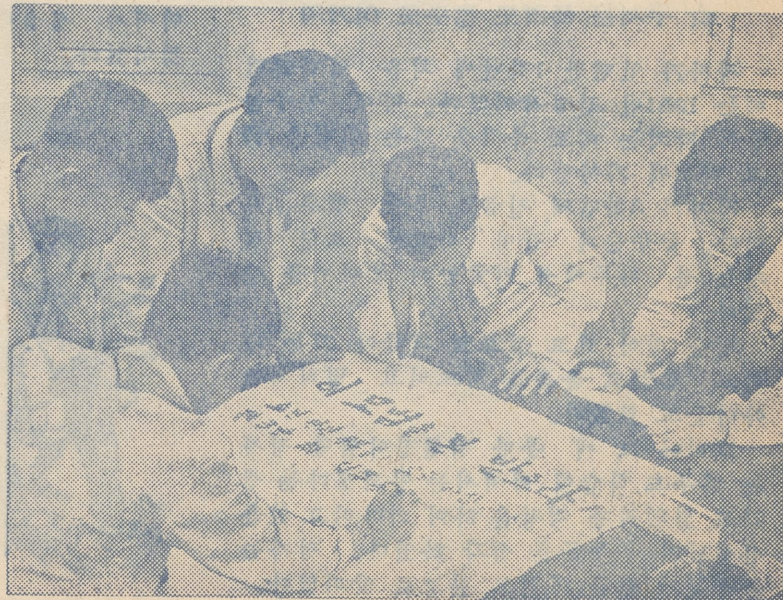
며칠이 지난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정주 동무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이른 아침에 먼저 학교에 나와서 동무들의 책상을 깨끗이 닦고 운동장에 널려 있는 종이 쪼박을 말끔히 주었습니다.

이날 분단 위원회에서는 분단 대렬 앞에서 정주 동무를 칭찬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 동무에게는 아직도 한가지 더 고쳐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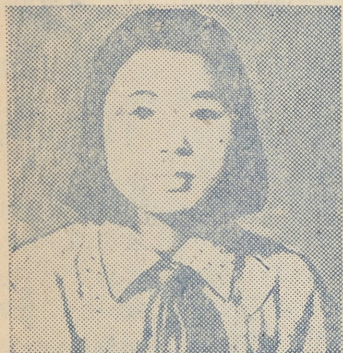
그것은 소년단원으로서 소년단원의 상징인 붉은 넥타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또 매고 다니지 않는 것이였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지난날 《소년 신문》에 실렸던 기사인 《귀중한 것》의 내용을 동무들 앞에서 읽어 주도록 정주 동무에게 맡겼습니다. 이 기사는 량강도 운흥 제 10 중학교 단 김 춘자 동무가 자기의 붉은 넥타이를 소중히 여기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정주 동무는 이 기사를 읽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넥타이를 잘 매지 않고 다닌 일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동무들 앞에서 기사를 읽어 주게 된 날 아침 그는 넥타이를 깨끗이 빨아서 곱게 다려 매고 나왔습니다.

이를 본 분단 동무들은 더없이 기뻤습니다.

정주 동무의 모범을 속보에 쓰고 있다.

8년을 하루같이

—함남 덕성군 주의동 중학교 단 리 정자 동무

글 최 옥 선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이 학교 단 벽보주필 리 정자 동무는 하루도 변함없이 8년을 꾸준히 공부하며 내내 최우등을 하였고 하루의 결석도 없이 학교에 다녔다.

정자 동무가 8년간을 학교에 다니는 기간에는 험악한 조국 전쟁도 있었고 앓아누워 계시는 어머니와 어린동생 넷을 남기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당했다. 또 비'바람 부는 날은 얼마나 많았고 눈보라 치는 날인들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러나 정자 동무는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8년간을 하루같이 학교에 나와 공부하였다.

☆ 무서운 폭격도 홍수도 이기며

정자가 인민반 1학년에 처음 입학하던 때는 1951년 전쟁시기였다. 미제 원쑤놈들이 닥치는 대로 폭격을 하는 위험을 뚫고 학교에 가야했다.

정자가 3학년에 진급한 봄에 있은 일이다. 동무들과 같이 학교에 오던 정자는 산 마루에서 미국놈의 쌕새기를 만났다.

겁을 집어 먹고 집으로 되돌아 가는 아이도 있었고 울음을 터뜨리고 덤벼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때 분단 위원장이였던 정자는 하루도 학습에 빠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을 선생님과 동무들을 생각 하였다. 정자는 동무들의 손을 이끌고 학교로 달리였다. 비행기들이 머리를 스칠듯 낮추 떠돌기 시작하자 인민 군대 아저씨들처럼 풀을 뜯어 온 몸을 가리우고 솔밭 사이로 빠져나갔다.

이해 여름에는 례년에 드문 물이 갔다. 비가 억수로 내린 날 아침 정자가 책 가방을 들고 강'가에 이르렀을 때는 늘 건너 다니던 다리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강은 바다처럼 넓었다. 정자는 강'가에 앉아서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15리 밖에 있는 신작로 다리가 생각났다. 학교에까지 가면 공부 시간은 거의 끝나게 될 것이였다. 《에돌아라서라도 가자》 단 한시간이라도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정자는 걷기 시작했다. 약 10리 가량 걸었을 때 정자는 지원군 아저씨들의 마차를 만났다. 지원군 아저씨들은 어린 정자가 달려 가는 뜻을 알고 마차에 태워 주었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 주는 것이였다.

정자는 공부 시간보다 한시간 반을 늦어 학교에 도착하였다. 정자가 교실에 들어서자 선생님과 동무들은 모두 놀라는 것이였다.

정자는 이날부터 다리가 다시 생기는 1주일간을 새벽에 일어나 학교에 오군하여 하루도 늦지 않았고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다.

☆ 집단의 사랑을 받아

정자는 초급반 1학년에 입학하던 해 아버지를 잃게되였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 누어 계시고 어린 동생은 넷이나 있었다. 어린 정자는 집'일을 해야 했고 터밭도 가꾸고 돼지도 길러야 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학습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정자는 집에서 부엌 일을 하면서도 짬짬이 로어 단어나 공식을 외우고 물 길러 우물에 나갈 때도 책을 들고 나갔다. 한번은 물 풀 차례가 되였는데도 책을 읽느라고 물풀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마을 어머니들은 《저렇게 공부에 애쓰는 아이를 우리가 도와 줘야지…》라고들 감탄하시였다. 정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마을 어머니들이 이미 물통을 들어 가고 없었다. 정자가 집에 와 보니 마을 어머니들은 저녁 밥을 지으려고 차비를 하면서 정자더러 어서 공부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였다.

정자는 집'일이 항상 바빴으나 단 벽보 주필로써 자기 맡은 일을 다하였다. 그리고 분단 사업을 위해서도 열성을 다하였다. 동무들 앞에서 한번도 집'일을 걱정하거나 집'일 때문에 분단에서 하는 일에 빠진적이 없었다. 분단 동무들은 마을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자네 집 사정을 잘 알게되였다. 그래 하루 저녁은 정자네 집'일을 돕자고 분단 동무들이 정자네 집으로 달려갔다. 이때 정자는 학교에서 벽보를 만들다가 늦은 저녁에야 집에 들어 서는 것이였다.

분단 동무들은 이날부터 분단을 위해 학교를 위해 열성껏 일하는 정자를 도와야겠다고 매일같이 정자네 집을 찾아 왔다.

정자는 이렇게 한번의 지각도 결석도 없이 꾸준히 학습하고 소년단 집단을 위해 열성껏 노력하여 집단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하여 정자는 이해에 중앙 민청 영예의 등록 표창에 빛나는 모범 소년단원으로 되였다.

☆ 정자의 학습

정자는 8년간을 하루의 결석도 없이 학교에 갔을 뿐만 아니라 공부 시간을 단 한 시간도 헛되히 보낸 일이 없었다.

하루는 정자가 학질을 앓았는데 그 누구도 그가 앓는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오후 공부 시간에는 열이 나고 몸이 떨렸으나 그는 선생님의 설명을 꼭 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온 정신을 집중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는 동안 정자는 아픔을 잊고 있었지만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는 동무들에게 부축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것이다. 정자는 지금도 그때 일을 회상하며 웬만한 병은 의지로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정자는 또한 그 시간에 배운 것은 그 시간에 꼭 리해하고야 말았고 그 시간에 외워 둘 수 없는 문제 즉 로어 단어, 력사 년대, 지명, 대수공식 같은 것은 수첩에 적었다가 학교에 오고 갈때 심부름 갈 때 짬짬이 학습하였다.

정자는 하루도 학습을 미룬다는 것은 그 만큼 뒤떨어 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8년을 꾸준히 공부하여 내내 최우등을 하였다.

태호네 반생활

평남 온천군 온천 중학교 단
제 9분단에서

그림 리 동춘

분단 위원회를 마치자 최 태호 동무는 곧 림 원주 동무를 찾아 갔습니다.

《넌 벌써 분단 총회에서 맡은 일을 잊었니?》

원주를 만나자 태호는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주는 지난번 분단 총회에서 벽보 원고를 쓸 것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단 위원회에서는 원주가 아직 벽보 원고를 써 오지 않았다는 것이였습니다.

《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써.》

원주는 씨무룩해서 겨우 대답했습니다. 원주의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태호는 소년단 사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 회의에서 의논된 내용을 알려 줄 때에 하던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지도원 선생님은 반 동무들이 분단이나 반에서 맡은 일을 제때에 해 내도록 반장들은 그들을 잘 도와 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장인 태호는 자기 반 동무들이 맡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때에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호는 분단 위원인 시건이와 의논하고 성준이네 집에서 반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원주 동무의 벽보 원고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의논하고 반 동무들의 생각을 모아 원주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단 위원 시건이도 원주가 쓰는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분단 벽보 《천리마》에는 《요즈음 우리반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원주 동무가 쓴 글이 나붙었습니다.

《야 우리 반이 벽보에 났구나!》

처음 분단 벽보에 나 본 태호네 반 동무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벽보에는 요즈음 1반 동무들이 소년 신문에 실린 《양어장에 깃든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반 모임을 가진 후 매일 한 가지 이상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자주 찾아 날아 오는 후티디새를 위하여 둥지를 만들어 준 장 성준 동무의 아름다운 마음이 씌여 있었습니다.

반 동무들의 도움으로 분단에서 맡은 일을 훌륭히 해 낸 원주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의논해서 하면 다 되겠구나.》

시건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 가면서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1주일 동안에 할 계획도 반 동무들과 의논해 세우면 잘돼.》

시건이의 대답이였습니다.

이리하여 태호는 반 동무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제 혼자 생각으로만 계획을 세우군 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시건에게 《성준이네 집을 반실로 정해 놓는게 어떻니?》하고 태호는 걸음까지 멈추며 물었어요.

이때까지 태호네는 성준이네 집에서 자주 모임도 가지고 공부도 했지만 반실로 정해 놓지는 않았지요. 때로는 다른 집에 가서도 했지요.

그 이튿날 방과 후 반 동무들은 성준이네 집에 모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초상 아래서 책을 펼치는 반 동무들의 마음은 저마다 새로웠어요.

시건이는 고급 중학교에 다니는 이웃 형님한테 가서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곱게 써 왔습니다.

그래서 목공 크루쇼크원인 안 광조 동무가 만들어 온 틀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책꽂이에는 반 동무들이 가져 온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미있고 좋은 책들을 꽂았습니다.

태호네 반 동무들의 생활은 점점 재미있게 잘 되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공부가 끝날 때까지 있던 리 천주 동무가 없었어요.

한참이나 반 동무들이 안타까이 기다렸으나 천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반 모임을 끝내고 태호가 찾아 가 보았더니 글쎄 천주는 집에 가서 어린 동생들과 함께 장난'감을 깍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태호는 천주와 함께 어린 동생의 장난'감을 깍으면서 오래도록 이야기했어요.

이날 태호는 반에서 천주에게 한번도 일을 맡기지 않았고 분단에서 반별로 하는 축구 시합 때도 선수로 뽑아 주지 않아 천주가 은근히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반 모임에서는 천주에게도 힘에 맞는 일이 맡겨 지군 하였습니다.

그 다음번에 있은 3반 동무들과의 축구 시합 때 천주는 반의 선수로 뽑혀 있는 재주를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태호는 반 동무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힘과 취미에 맞게 일을 맡겨 주고 잘 도와 주어 반 동무들이 모두가 반 생활에 열성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후 천주는 분단 모임과 반 모임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해서 좋은 의견을 내 놓기까지 했습니다.

태호네 반 동무들은 아침 6시만 되면 운동장에 모여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체조를 합니다.

그리곤 온 마을을 깨끗이 쓸고 반실에 가서 한 시간씩 아침 공부를 하지요.

하루 공부가 끝나면 반실에 와서 2시간씩 공부한 다음 그날 한 일과 다음날 할 일을 의논합니다.

태호네 반 동무들은 서로 도와 주고 깨우쳐 주면서 모두 한 마음이 되여 재미있는 반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즐거운 여름 방학을 맞이한 태호네 반 동무들은 아침마다 조기 체조는 물론이고 반실에 모여 공부하고 책도 읽으며 또 산과 들에 나가 동식물 채집도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사 기자)

☆

☆ ☆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가요

(전호에서 계속)

의무 여섯째는 **《소년단원은 항상 정직하며, 좋은 것을 따르고 나쁜 것을 버려야 한다.》**입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옳은 것을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도덕 품성의 하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주나 자본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착취하며 자기 혼자만 돈을 모아 잘 살기 위해 남을 속이고 피이는 온갖 나쁜 짓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힘을 모아 서로 돕고 받들면서 정직하고 화목하게 그리고 좋은 것은 따르고 나쁜 것은 버리면서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년단원들은 바로 이처럼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옳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동무들 가운데서는 동무들이나 어른들을 한 번 슬쩍 속여 넘기는 것을 그 어떤 《자랑'거리》로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속담에 《바늘 도적이 소 도적 된다》고 이런 것이 자라고 크면 나중에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무들끼리나 어른들 앞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속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등은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따르고 나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가요?

이것은 낡은 것과 새것을 분간할 줄 알며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본받는데 항상 앞장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년단원의 품성의 하나입니다.

소년단원! 하면 왜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사랑하고 귀여워 하겠습니까!

그것은 동무들이 새로운 것,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 파릇파릇 자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 들여 우리 조국의 앞날을 무한히 꽃피울 동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봉건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찌꺼기들인 온갖 낡은 풍습들, 미신, 종교, 그 밖에도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나쁜 것들—례를 들면 로동을 싫어하고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개인 리기주의 등을 반대하고 새롭고 좋은 것을 받아 들이는 데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이에서도 우리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 혁명단원들의 모범을 배우며 영웅들과 로력 혁신자들, 그리고 모범 소년단원들의 모범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의무 일곱 번째는 **《소년단원은 자기 몸을 깨끗이 거두며, 학교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입니다.

교양 있고 문화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몸은 물론이고 자기가 쓰고 사는 집, 마을, 자기 학교, 자기 일터를 깨끗하게 거두며 언제나 아름답게 말하며 행동합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습관을 키워 나가는 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 소년단원들 가운데는 위생을 잘 지키지 않고 몸차림을 게잘싸 하게 하고 다니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손으로 음식물을 덥썩덥썩 집어 먹거나 산이나 들에 나가 랭수를 함부로 마시며 익지 않은 과일 같은 것을 다닷는대로 먹는 등 아수 볼품없이 행동하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무들이 회충증에 걸리거나 지스토마 같은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차림, 자기의 학용품, 자기의 학교와 집을 깨끗이 거두지 못하는 게잘사한 사람은 학습과 일에서도 변변치 못한 법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세수와 목욕도 잘 하며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다니며, 자기 집과 자기 학교를 깨끗하게 거두며 행동도 아름답게 하는 등 문화적인 습관을 키우기 위해 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 근위대》, 《록화 근위대》 활동에도 열성껏 참가하여 모기, 파리, 쥐, 참새들을 잡아 없애며 지스토마를 없애는 가재, 골뱅이 잡이에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의무 여덟째는 **《소년단원은 소년단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소년단 회의에서 하기로 한 일과 말은 일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소년단은 전체 소년단원들이 자각적으로 뭉친 조직입니다. 때문에 소년단 사업의 주인은 소년단원 자신들이며 소년단의 모든 사업은 전체 소년단원의 의사에 의해 진행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동무들은 마치 소년단 사업은 단 지도원 선생님이나 분단 지도원 선생님 그리고 단위원, 분단 위원, 반장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며 단, 분단, 반 모임에서 주는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아동 혁명단원들은 자기 조직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였으며 조직이 준 위임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목숨까지도 바쳐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범을 본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은 소년단의 모든 사업에 빠짐 없이 참가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으며 소년단 조직이 준 일을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 반드시 제 기한 내에 해내는 규률 있고 책임성이 강한 사람으로 자기를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의무 아홉 번째는 **《소년단원은 항상 어린 소년들을 잘 가르치며, 그들의 입단 준비를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어린 동생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학습을 힘껏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 속히 소년단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선 소년단은 160만의 붉은 어린이들이 뭉친 큰 조직으로 자랐습니다. 소년단 조직은 끊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란 훌륭한 동무들은 로동당의 후비대인 영예로운 민청원으로도 되며 또 소년단에는 새로운 동무들이 끊임 없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단 조직은 더욱 더 커가는 것입니다.

소년단원이 자기 조직을 늘구는 일에 참가하는 것— 이것은 매우 영예로운 일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붉은 어린이들의 조직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무들을 묶어 세우는 것은 곧 그만큼 우리 당의 혁명을 돕는 힘을 크게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항상 어린 동생들에게 소년단은 어떤 조직이며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이고 소년단원의 맹세와 소년단의 구호, 소년단 기'발, 넥타이, 휘장의 뜻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소년단 조직에 받아 들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의무 열 번째는 **《소년단원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려는 온갖 원쑤들을 미워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입니다.

지금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와 그의 앞잡이 지주, 자본가 놈들은 어리석게도 우리의 행복한 사회주의 제도를 해쳐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놈들은 지난 날 전쟁으로 우리 공화국 북반부를 삼키고 우리의 형제 나라들인 중국과 쏘련까지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놈들은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앞에 다리가 부러지고 코가 깨여졌습니다.

그러나 원쑤들은 틈만 있으면 간첩, 파괴 분자, 암해 분자들을 북반부 지역에 들여 보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우리의 이 행복한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려는 온갖 원쑤들을 미워하며 그놈들이 발붙일 곳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원쑤들은 교활합니다. 원쑤들은 경각성이 무디고 좀 달콤한 말이면 얼른 귀가 벌룩해지며 조직 생활에도 잘 참가하지 않으며 규률도 지키지 않고 학습과 일에 게으르며 나쁜 장난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발을 붙일려고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원쑤놈들에게 속지 말아야 하며 항상 경각성이 높아야 합니다.

마을과 학교에서 거리와 길'가에서 수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무심코 지나치지 말아야 하며 이상한 말 같은 데도 항상 경각성을 높이며 제때에 선생님이나 내무 기관에 가서 알려야 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소년단원의 의무는 어떠하며 그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은 소년단원의 권리는 어떠하며 그를 어떻게 지켜야 할가에 대하여 말해 봅시다.

소년단원이라면 그 누구를 물론하고 소년단 규정에 규정되여 있는 똑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마음대로 빼앗거나 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소년단원의 권리는 소년단원으로서 소년단 조직 안에서 차지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년단원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가요?

첫째로, 소년단원은 소년단의 모든 사업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를 가집니다.

소년단은 소년단원 자신들의 조직입니다. 때문에 누구던지 소년단원이라면 소년단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년단원이 단, 분단, 반 모임 기타 소년단의 모든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응당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은 소년단의 모든 사업에 주인 답게 참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년단원은 단 위원, 분단 위원, 반장으로 선거 받을 수 있으며 또 선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년단원이라면 누구든지 단, 분단 위원으로 또는 반장으로 선거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또 남을 선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의 뜻에 의해 단, 분단 위원, 반장이 선거되거나 또는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년단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공부를 잘 하고 행동이 옳바르기 때문에 동무들에게서 신망이 높은 동무들이라면 누구든지 소년단 단, 분단 위원으로 또는 반장으로 선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단원이라면 그러한 동무들에게 대하여 누구든지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소년단원은 동무들의 잘못에 대하여 어느 때나 타일러 줄 권리가 있습니다.

소년단 사업은 항상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잘못 되는 것을 고쳐 나가는 가운데서 더욱 발전해 나갑니다.

소년단원들 끼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점이 무엇이고 그를 어떻게 고쳐야겠는가 하는 것을 제때에 알고 빨리 고칠수록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서로 동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하여 숨김 없이 내놓고 타일러 주어야 합니다. 친한 사이라고 하여 동무의 잘못을 알면서 타일러 주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동무를 사랑하는 것이 못됩니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 혁명단원들이 어떻게 동무를 진정으로 사랑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 혁명단원들은 동무를 위해서라면 어려운 싸움터에서 목숨까지 서슴치 않고 내놓았지만 그러나 동무가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손톱만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단원은 이 모범을 본 받아 동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제때에 타일러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단원은 동무들이 자기 잘못을 타일러 줄 때 그를 용감하게 받아 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네째로, 소년단원은 소년단 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반, 분단 위원회, 단 위원회, 소년단 출판물 그리고 민청 지도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에서도 말했지만 소년단은 소년단원들의 조직이며 소년단의 주인은 소년단원들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단, 분단, 반

사업에서 좋고 나쁜 점에 대하여 또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과 요구들을 서슴치 말고 모임때나 또는 반장, 분단 위원회, 단 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과 요구들을 《소년 신문》, 《소년단》 등 소년단 출판물 편집국(부)에 보낼 수 있으며 또는 리 민청으로부터 군 민청, 도 민청 중앙 민청에 이르기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소년단원은 자기의 민청 가맹 보증에 대한 요구를 단 위원회에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년단원은 소년단에서 꾸준히 배우고 준비해서 자기가 능히 민청원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였을 때(만 15세부터)에는 자기의 민청 가맹에 대한 보증을 해줄 것을 단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년단 위원회에서 자란 훌륭한 소년단원들 중에서 능히 민청원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동무들에 대하여는 그에 대해 단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그의 가맹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은 소년단 생활을 하면서 민청원 형님들의 모범을 꾸준하게 배우면서 영예로운 민청원이 되기 위해 꾸준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는 우에서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는 어떤 것이며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 보았습니다.

모두가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잘 지켜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배우며 준비해 나갑시다.

— 끝 —

《토끼가 늘어 갑니다》

《소년단》 편집부입니까? 평북도 정주중학교 김 영환입니다. 우리 학교의 토끼 사양 크루쇼크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토끼 사양 크루쇼크는 번식반, 방역반, 사양반 등 3개의 반으로 조직되여 있습니다.

번식반에서는 무엇을 하는가구요? 번식반에서는 어떻게 하면 새끼를 더 많이 내우겠는가를 연구합니다. 번식반 동무들은 쌍을 얹는 방법도 다른 학교와 농목장들에서 얻은 좋은 경험들을 본받아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평균 어미 토끼 한마리에서 4~5마리의 새끼밖에 내우지 못하던 것을 지금은 8~9마리씩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반 동무들은 학교의 암토끼를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쌍을 얹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끼를 낳지 않고 달을 번지는 어미 토끼가 많았습니다. 3월에만 해도 8마리의 어미토끼가 번졌습니다.

그럼요! 어미토끼 한마리가 5마리씩만 새끼를 낳는다 쳐도 40마리를 손해본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호의 어미 토끼는 쌍을 언제 얹고 새끼는 언제 낳으며 새끼의 젖은 얼마 있으면 떼게되며 따라서 암내는 어느때쯤 가면 일겠는가를 알아 가지고 제때에 쌍을 얹히군 합니다.

다음 방역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방역반에서는 한마리의 토끼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들은 이런 일을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53마리의 토끼가 꼭시듐을 비롯한 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꼭시듐에 걸리게 되였는가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것은 토끼 우리에 환기 장치도 잘되여 있지 않는데다 토끼 우리의 바닥 깔개가 토끼의 오좀 똥으로 늘 젖어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토끼우리의 바닥 깔개를 두개씩 만들어 가지고 매일 번갈아 깔아 주군합니다.

그리고 토끼 우리를 자주 일광 소독 또는 화염 소독을 해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병들어 죽인 토끼는 아직 한마리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토끼를 기르면서 토끼의 생활 습성, 사료 조리법, 병을 예방하는 법등 많은 축산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에 토끼 기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가구요?

지금 우리들은 모두 그 일에 떨쳐 나섰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토끼를 많이 죽인 것도 장마철이였습니다. 이영을 잘하지 못해서 토끼 우리에 비가 스며 들어 습기가 차서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있고 특히 장마철에 먹일 사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맞아 젖은 풀을 뜯어다 먹여 어린 토끼들은 모두 설사를 만나 죽었습니다.

네? 그럼요 아침 이슬이 맺힌 풀을 뜯어다 먹이는 것도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료를 해다가 3~4시간 동안 두어서 물이 말른 다음에 줍니다.

지난 해의 교훈을 살려 지금 낡은 토끼 우리들은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먹일 사료로 아까시아 잎을 뜯어다 말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토끼가 몇마리나 되는가구요? 531마리입니다. 그중 암토끼가 343마리인데 지금 새끼를 낳는 어미 토끼는 180마리입니다.

네? 그럼요. 우리들이 계획한 2,920마리는 문제없습니다.

장마철에 토끼 기를 준비를 잘 합니다

여기는 함남도 신포군 호남 중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의 토끼 기르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몇마리나 되는가구요? 220마리입니다. 우리는 올해 2,500마리를 길러낼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장마철에도 토끼를 잘 기르기 위해서 토끼 우리를 잘 수리하며 장마철에 먹일 풀도 많이 장만하고 있습니다. 토끼 기르기에 모범인 제 2분단 동무들의 사진을 한장 보내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나는 식물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네 남포시 한두 중학교 1학년 방 순히예요.

제가 식물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구요?

저는 식물 과목을 배우면 자연 속에 나가 직접 실험해 보는 것을 즐깁니다.

얼마전 식물 시간에 우리는 줄기에서 수분과 광물질염(철 성분, 칼슘, 카리 등의 성분)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돌아 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실험해 봤지요.

어떻게 했느냐구요? 빨간 물감을 탄 물을 병에 넣고 버드나무 가지를 넣어 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지를 꺼내서 물을 씻은 다음 가로 베여 보니 딴딴하게 된 목질부의 부분만 빨갛게 물든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나는 뿌리에서 빨아 올린 것은 목질부를 거쳐 이동되어 잎으로 간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어요.

나는 지금 식물은 우로 자란다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구요? 온실에서 기르는 강남콩의 줄기에 같은 사이를 두고 눈'금을 여러개 그었지요.

그다음 우리집 방에 가져다 따뜻이 뒀다가 오늘 아침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줄기의 웃부분에 있는 눈'금들이 사이가 어제보담 더 길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자란 것이지요.

줄기의 웃부분에 있는 세포들이 갈라져서 더 많아지고 세포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이예요.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 나는 또 한가지 더 알아 냈습니다. 인민반 2학년 때에 우리집 앞에 오빠가 심은 어린 사과 나무의 웃부분을 작년에 아버지가 베였어요.

그랬더니 우로는 더디게 자라나고 곁가지가 고루게 잘 자라겠지요.

이때까진 무엇 때문인지 몰랐어요. 이번 실험을 끝내고 한참 생각 끝에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가구요? 웃부분을 베였기 때문에 세포가 옆으로 퍼진 것이지요.

이렇게 나는 배운 지식을 더욱 깊고 넓게 알기에 힘 쓰고 있어요.

네? 여름 방학엔 산과 들을 찾아 다니며 여러 가지 식물 표본을 만들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해 가을에 우리 분단 식물 크루쇼크원들은 삼화, 우산에 가서 둥굴레를 캐다가 온실에 심었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에도 이 산에 가서 은방울꽃, 도라지, 산딸기를 찾아 보겠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꼭꼭 실험해 보니 나의 식물 지식은 더욱 깊어져요.

네. 자주 찾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분단의 힘으로

—개성시 만월 중학교 단
제 4분단에서—

김 준 규

지난 봄 어느 월요일 아침이였습니다.

교실로 들어 가면 분단 동무들은 분단 벽보 《붉은 마음》 앞에 모여 섰습니다.

《무슨 재미 있는 이야기가 실렸을가?》 우 정자 동무도 동무들 틈에 끼여 들었지요.

벽보에는 일요일에 농업 협동 조합 거름 내는 일을 도우러 나간 분단 동무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열성을 내여 아저씨들의 칭찬을 받은 이야기와 왕 문자 동무의 기특한 마음에 대해서 쓴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벽보를 다 읽은 정자는 아무 말없이 슬그머니 돌아 섰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자는 어제 어머니가 앓는다는 핑게를 대고 분단 동무들이 일하는데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화 구경까지 하다가 선생님의 눈에 띠우게 되여 본체만체 내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에 지피지 않겠어요.

이날 방과 후 마침 분단에서는 벽보에 실린 내용을 가지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벽보 내용을 읽은 다음 분단 위원장한 원옥 동무가 분단 동무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여서 하면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협동 조합 아저씨들의 일을 도우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뒤를 이어 다른 동무들이 말했습니다.

진 옥자 동무는 적은 힘이나마 아저씨들을 도와 땀을 흘리고 쉬는 시간에 힘차게 노래를 부를 때는 얼마나 즐거웠던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토끼 당번이였던 박 희자 동무는 왕 문자 동무의 기특한 마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문자는 어제 앓는 어머니의 시중을 드느라고 약속된 시간보다 좀 늦어서야 학교에 왔답니다. 그런데 와보니 벌써 분단 동무들은 다 가고 없지 않겠어요.

문자는 급히 동 사무소로 뛰여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이미 동무들은 없었어요. 동 사무소 아저씨들도 안 계셔서 어데로 갔는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분단 동무들이 다 일하는데 자기만 집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었어요.

한참 서서 망서리던 문자는 무슨 결심이나 한듯 획 돌아서서 분단 토끼우리로 뛰여 갔습니다.

이날 문자는 희자 동무와 함께 부러진 토끼 우리 창살을 다 갈아 댔습니다.

희자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자는 아무 말없이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정자는 어쩐지 자기를 두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 분단 동무들은 지도원 선생님께서 소년단 사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단 위원회는 위원들과 반장들만 따로 모아 놓고 《소년 신문》에 실린 전원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분단 위원회가 할 일을 의논했습니다.

정자네 반장인 하 인자 동무는 말하기를 이때까지 정자를 까다로운 아이라고만 하면서 아예 분단 일에 참가시키지부러 않은 것이 잘못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자가 소설 책 읽기를 즐겨하니 《읽은 책 이야기 모임》때 이야기 하도록 돕자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난 후 《읽은 책 이야기 모임》 때였습니다.

정자는 《단합된 힘》이라는 항일 빨찌산 투사 최 기철 선생의 회상기를 읽고 전 기옥, 최 래룡 두 소년 선봉대원들과 훈춘현 인민들의 용감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정자의 이야기를 들은 분단 동무들은 저마다 두 소년 선봉대원들이 앞장에 서서 싸워 지주놈들과 경관놈들을 뒤'걸음 치게한 훈춘현 인민들의 뭉친 힘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날 정자는 어쩐지 여느 때보다 즐거웠습니다.

정자는 차츰 분단과 반 일에 열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무들과도 곧잘 어울리어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에게서 들은 옛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무들은 더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지요.

그런데 이럴 때면 정자의 뒤'자리에 앉은 숙자가 가끔 비웃군 했습니다.

《체! 일하기는 싫어 하면서 말만 잘하면 무슨 소용인가》고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숙자는 공부 시간에도 가끔 정자를 비웃군 했습니다.

로어 공부 시간 때 선생님의 지명을 받은 정자가 겨우 떠듬거리며 읽군 할 때면 말이지요.

이런 사실을 안 분단 위원회는 먼저 정자의 로어 공부를 도와 줄 데 대해 의논 했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정자의 로어 공부를 인자가 돕도록 했습니다.

한편 동무를 도울 대신에 남을 깔보기 좋아하는 숙자를 고쳐 줄 데 대해서도 의논했습니다. 분단 벽보 주필인 오 명주 동무는 《소년 신문》과 잡지 《소년단》이 나올 때마다 먼저 읽고서는 분단 동무들 앞에서 다른 학교들에서 동무를 도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러면서 분단 위원회에서는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처럼 동무를 돕자》는 모임을 준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모임은 한달 후에 진행되였습니다.

이날은 먼저 우 정자 동무가 말하게 했습니다. 정자는 자기의 뒤떨어진 로어 공부를 도와 주기에 애쓴 인자 동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자의 도움으로 정자의 로어 성적은 그전보다 훨씬 나아져서 선생님의 칭찬까지 가끔 받게 된 것입니다.

이날 모임에서 분단 동무들의 이야기를 듣는 숙자는 남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어느날 한 원옥 동무를 찾아 가서 개성 제지 협동 조합 아저씨들이 종이를 많이 만들도록 파지를 모아 보내자고 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2톤이나 되는 파지를 모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분단엔 아저씨들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4분단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는 분단마다에 전하하여져 얼마 후에는 날마다 협동 조합 아저씨들을 돕는 분단이 늘어 갔습니다.

지금 분단 동무들은 얼마전 단 총회에서 받은 모범 분단 기'발을 보며 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소년단의 입단 절차와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강원도 평강군 상송 중학교 단 위원장 장 상룡

편집부는 상룡 동무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평양 남신 중학교 단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다.

우리 학교 단에서는 국가적 명절과 뜻깊은 기념일 때마다 소년단 입단 맹세를 위한 단 총회를 꼭꼭 진행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단 맹세를 위한 단 총회를 가지기 위하여 소년단원으로 될 동무들과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회에서는 그들에게 《소년단은 어떤 조직인가?》 《소년단원으로는 어떤 소년이 될 수 있는가?》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 등 소년단에 대한 지식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정직하며 웃어른들을 존경할줄 알며 행동이 아름다와야 소년단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군 합니다.

때로는 소년단 사렬식, 분단에서 가지는 여러가지 모임 등에 참가시켜 소년단에서 하는 일들을 배워줍니다.

새로 입단한 소년단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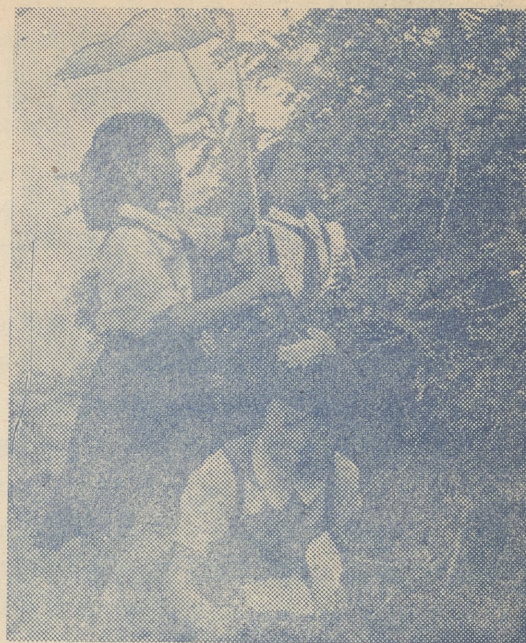
우리들은 그들이 입단 준비를 다 갖추고 소년단에 들어 오겠다고 희망할 때까지 계속 도와 줍니다.

그들이 입단을 희망하면 분단에서는 곧 분단 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가시키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소년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입단 준비는 어떻게 했는가 등의 내용을 알아 봅니다.

다음에는 분단 총회에 내놓고 그들의 입단을 한 사람씩 결정했습니다.

분단 총회에서 그들의 입단이 결정되면 곧 단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단 위원회에서는 그들에게 《입단 맹세문》을 씌우며 붉은 넥타이, 소년단 휘장 등을 준비하도록 도와 주었고 소년단 경례법도 배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단 맹세를 위한 단 총회날과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입단 맹세를 위한 당 총회를 1월 1일, 2.8절, 4월 15일, 5.1절, 6.1절, 6월 6일 소년단 창립 기념일, 8.15 해방 기념일, 11월 7일 사회주의 10월 혁명 기념일 등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명절과 기념일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지난 2.8절에는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의 《수령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입단 맹세를 위한 단 총회 순서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맨처음 대렬 보고와 단기'발 입장이 있은 다음 대렬 오른쪽에 섰던 새로 입단한 소년단원들을 대렬 앞에 일렬 횡대로 세웁니다. 다음《김 일성 장군의 노래》로 총회를 시작하고 단 위원장이 새로 입단한 소년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입단 맹세를 랑독했습니다. 입단 맹세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한 구절씩 읽으면 새로 입단한 소년단원들이 따라 읽습니다. 맹세를 다진 다음 자기 맹세문에 서명을 하게 하고 준비한 붉은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을 내주었습니다. 그 넥타이와 휘장은 총회에 참가하셨던 혁명 투사 아저씨나 영웅 아저씨가 달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단 지도원 선생님은 처음으로 소년단 구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준비!》의 답례를 하면서 일제히 소년단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렬에 들어 가 앉습니다. 다음 이들을 축하하여 모임에 참가하셨던 혁명가 아저씨나 영웅 아저씨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총회를 끝내고는 사렬식이 아니면 견학 또는 체육 경기 등 즐거운 모임을 가지군 합니다.

평양 남신 중학교 단위원장 선우 정호

파리와 모기잡이

8.15 위생 깜빠니야 기간(6.15—8.10)을 맞이한 평양시 문수 중학교 단 10 분단 동무들은 파리, 모기 잡이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위생 근위대원들에게

식중독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여름철에 흔히 변한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우유 쉰밥 같은 것을 먹었을 때에는 식중독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아지 알이나 독이 든 버섯을 먹었을 때에도 식중독에 걸립니다. 이런 음식물을 먹은 사람은 거의 다 같은 시간에 앓게되므로 때로는 온 가족이 모두 이 병으로 눕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은 변한 음식이나 독이 든 음식물을 먹은지 4～48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먹은 것들을 막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쌀뜨물과 같은 대변을 보면서 설사도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열이 약간 올랐다가 차츰 내리면서 손발이 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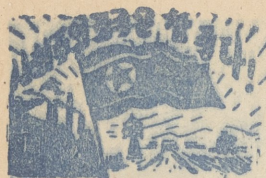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예방할가요?

변한 음식물이나 변했다고 생각되는 음식물, 그리고 복아지알, 독이든 풀이나 버섯을 절때로 먹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음식물을 오래'동안 둔다거나 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두는 부엌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식기와 수저는 끓는 물에 자주 소독하여 균이나 독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우기 중요한 것은 파리와 쥐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잡아 없애야 합니다.

파리와 쥐는 더러운 곳으로 돌아 다니며 많은 병균을 묻혀다가 식중독을 비롯한 적리와 기생충병 같은 것을 옮기니까요.

머슴군의 아들로부터 기사로

최 죽 산

히 히만 아저씨는 지금 중공업 위원회 전력 건설 설계 연구소에서 설계 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저씨는 나에게 비참하던 어린 시절의 일들과 해방 후 사회주의 조국의 품 속에서 행복하게 공부하여 기사로된 장랑찬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 ×

지주 집 머슴살이를 하던 아버지가 살'길을 찾아 두만강 류역인 회령에 와서 목재소에서 일하게 된 것은 히만이가 여섯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주 자본가의 세상 그 어데엔 간들 다르겠습니까!

일하러 다니시던 아버지가 어느날 강'가에서 떼'목을 끌어 올리다 그만 떼'목에 치웠습니다. 그것이 탈이 되여 시름시름 앓으시던 아버지는 그 이듬해 봄에 약 한 첩도 변변히 써보지 못한채 그만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세상은 넓어도 의지 할 데 없이 남은 어머니와 히만이의 앞길은

설계에 여념이 없는 희만 아저씨

막막하였습니다.

그래도 살아 나가기 위하여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에 들어 가 일하시던 어머니마저 나무'더미 우에서 곱디딘 발목이 탈이 되여 눕게 되였습니다.

히만이는 앓는 어머니에게 죽물이라도 대접 할려고 여러 친척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놈들은 일하다 상한 사람을 고쳐주기는 고사하고 병자라고 하여 공장에서 쫓아냈습니다.

히만이는 일본 놈들이 눈에 가시처럼 미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돕고 살아 나가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그처럼 고생하시던 공장으로나마 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있는집 아이들 같으면 한창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인 열 두살 때입니다.

하루 종일 힘에 겨운 일을 하다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갈 때면 떼'목 더미에 쪼크리고 앉아 남모르게 운적도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얼마 후 히만이는 톱날 쓸는 데서 견습공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많은 로동자들은 어린 히만이를 귀엽게 여겨 십장놈의 눈을 피해 가며 힘든 일을 도와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이였습니다. 아침 밥도 먹지 못하고 공장에 나온 히만이가 허기증에 걸려 망치질을 잘 못하여 톱날을 분질러뜨렸습니다. 《멍텅구리 같은 녀석이》하며 왜놈 십장놈은 희멀건 눈알을 부라리더니 작업대 우에 놓인 시뻘겋게 단 인두 (톱날을 어울 때 쓰는 인두)를 히만에게 휙 던졌습니다. 화상을 입어 사람은 까무라쳐 가는데 그놈은 욕설만 퍼붓고 있었습니다. 로동자들은 저마다 점심밥 그릇에서 된장을 가져다가 상처에 붙여 주었습니다.

《망할 놈들 돈만 알지 사람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네놈들이 얼마나 오래가나 두고 보자》하며 한 늙은 로동자는 주먹을 내 흔들며 격분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날밤 히만이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쓰러져 너무 슬프고 일본놈들이 미워나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소리 없이 치마폭으로 눈언저리를 더듬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해방과 함께 히만의 서럽고 어렵던 소년 시절은 영원히 가버렸습니다.

돈 한푼 없어 몇해를 두고 고생하던 어머니의 병은 불과 석달만에 한푼의 돈도 드리지 않고 완전히 고치였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바로 왜놈들에게 천대 받던 그 목재 공장에서 떳떳한 공장의 주인으로 일하게 되였습니다.

열 세살 되는 해에 히만이는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되였습니다. 어머니의 첫 상금으로 산 새옷과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히만의 가슴은 기쁨과 자랑으로 하여 울렁 거렸습니다.

해마다 늘어 가는 살림에 어머니는 더욱 신이 나서 일하시였습니다.

히만이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때면 더욱 공부에 열심했습니다.

히만이는 초급 중학교에 다닐 때 도에서 열린 물리 수학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날 그는 꼭 전기 기술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벌써 고급 중학교 때 중앙 민청 모범 맹원으로 표창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제 원쑤놈들이 히만이에게서 이 행복을 빼앗으려고 덤벼 들었습니다.

전쟁이 개시되자 히만이는 원쑤를 무찌르는 싸움에 누구보다 먼저 탄원하여 나섰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였으나 당에서는 1952년 여름 전선에서 싸우는 히만이를 불러 불가리야로 류학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때의 히만이의 기쁨이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는 불가리야의 수도 쏘피아의 기계 전기 대학에서 5년 6개월 동안 계속 최우등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가 공부를 끝마치고 돌아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머슴'군의 아들이 외국에 류학을 갔다 오다니 이게 그전 세상 같으면 어디 꿈에나 생각할 일이요. 참 좋은 세상이지요.》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너무도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시며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원 이런 고마운 세상이라구야 이것이 다 우리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덕분이니라…》라고 하시며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시였습니다.

히만 아저씨는 며칠 전에도 어머니로부터 행복하면 할 수록 지난 날을 잊지 말고 로동당원답게 당과 수령을 위하여 더 일 잘하라는 당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5년 만에 어머니의 병을 고쳤어요

우리 집에는 또 하나의 기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한 것입니다. 15년전에 우리 어머니는 일본에서 치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나날이 약해 갔으나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생각 조차 하지 못하였어요.

우리 집 아홉 식구는 어머니가 낡은 책과 신문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그날 그날의 끼니를 이었으며 일곱 형제의 학비도 대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이 없어 끝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자면 일본에서는 4만원이나 들어야 했습니다.

글쎄 그날그날의 끼니도 이어가기 어려운 살림에 이 많은 돈을 마련할 념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우리 집 식구들의 얼굴엔 어두운 그늘이 가셔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우리 집에는 조국에 돌아 온 첫날부터 기쁜 일들만 늘어 웃음소리가 끄칠줄 모른답니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에서 우리 형제들은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배우고 있으며 아버지까지 로동당 중앙당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두번째 귀국선을 타고 조국에 돌아 오자 어머니는 곧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스므날 동안 어머니는 좋은 식사를 하시며 페니시링, 포도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싼 약을 많이 썼습니다.

나는 일요일 마다 어머니를 만나려 병원에 찾아 가 보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이 고마운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니》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긴 행복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 언니들의 그 친절하고 극진한 치료로 하여 15년 동안이나 그처럼 고생하던 병을 다 고치고 퇴원할 때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입원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글쎄 조국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무료로 고쳐 주었으니 말이지요.

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료로 치료를 받고있지 않아요.

어머니는 이 좋은 사회주의 조국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해야겠다고 하십니다.

평양시 선교 고급 중학교
초급반 2 학년 림 광자

나는 죽엄의 구덩 속에서 살아났다.

나는 지금도 아슬아슬한 죽엄의 고비에서 살아난 때를 생각하면 두 눈에서 번개'불이 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시기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기여든 미국놈들은 집들을 불사르고 로동당원 아저씨들과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습니다. 놈들은 우리 마을 밤나무'골에 있는 큰 창고에다 애국자들을 모조리 잡아다 가두고 휘발유를 치고 그 안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놈들은 어린애를 가진 어머니들의 배를 갈라 배'속의 아이들을 꺼내여 《〈빨갱이〉는 이렇게 씨앗을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구두'발로 짓밟군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알과 손톱을 뽑으며 코와 귀를 쇠줄로 꿰서는 끌고 다니다가 총살하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원쑤놈들의 총탁에 맞아 돌아 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후퇴하시다 신천에서 놈들에게 붓들려 휘발유'불에 타 죽었습니다.

놈들은 우리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의 진격으로 쫓겨 달아 나면서 마을 인민들을 묶어 가지고 솔모리'골이라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깊은 웅덩이에 쓰러넣고 날창으로 찌르고 총기로 쏘아 죽였습니다. 나는 이 틈에 끼여 있다가 다행히도 살아났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김 일성 장군 만세!》《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이 승냥이 놈들아 빨갱이 피가 얼마나 빨간가 봐라》라고 웨치며 그놈들의 상판대기에 피를 쥐여 뿌리며 마지막 숨을 거두던 용감한 로동당원 아저씨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쏘아대는 총기에 맞은 우리 어머니는 쓰러지면서도 나를 치마 밑에 넣어 주었습니다. 나는 얼결에 넘어졌습니다. 뭇사람들이 어머니 우에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나는《어머니》하고 어머니를 껴 안았으나 이미 어머니의 몸은 차가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입속으로 몇마디 뭐라고 하시더니 나를 떠미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빨리 뛰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쑤를 갚아야 한다.) 고 다짐한 나는 어머니의 당중과 치마자락을 찢어 가지고 산으로 기여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산골에 있는 고모네 집을 찾아가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놈들은 정말 사람의 가죽을 쓴 승냥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그 놈들이 바로 지금 남조선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고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힘껏 돕기 위하여 공부를 더 잘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 《파마 완충기 계획》 활동에도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해주시 유자녀 학원
초급반 1학년 박 국 동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미제는 나의 원쑤이다

나의 어버지,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두 미제놈들이 죽였습니다.

로동당원이라 하여 죄 없는 나의 아버지를 무참하게 죽인 놈들은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 우리 집에 달려 들어 늙으신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목을 매서 끌고 다니며 때리다가 산채로 땅에 묻어 죽였습니다.

미국놈들은 승냥이보다 더 악독한 놈들입니다. 나는 이때 큰 아버지네 집으로 어린애 나려 가신 어머니를 따라 가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놈들은 바다'가에 구뎅이를 파 놓았다가 밀물이 들어 오면 사람들을 물 속 구뎅이에 쓸어 넣어 죽였습니다.

놈들은 엄마를 찾으며 악을 쓰는 아이들을 날창으로 찌르고 구두'발로 물에 차 넣었습니다. 나는 그 때 놈들이 《빨갱이》 종자는 씨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만 잡으려 오기 때문에 큰 독 속에 숨어 있군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미국놈들을 갈아 먹어도 시원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독한 미국놈들이 아직도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 자유와 행복을 위해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을 총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원쑤는 미제이며 전체 조선 인민의 원쑤도 미제놈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미제놈은 조선 땅에서 당장 물러 가야 합니다. 원쑤놈들을 하루 속히 물러 가게 하기 위해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공부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투쟁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힘껏 도와 나서겠습니다.

함남 북청군 성남 중학교
제 1분단 (제 3학년) 림 정자

미제는 당장 물러가라!

화려한 아빠트 밝은 유리창으로
방긋이 햇님이 웃어 주는
즐거운 우리 명절 6.1절 아침

새 옷 입고 붉은 넥타이 맬때
학교 갈 나이에도 학교 못가고
책가방 대신에 깡통을 들고
쓰레기통 뒤지는 나의 동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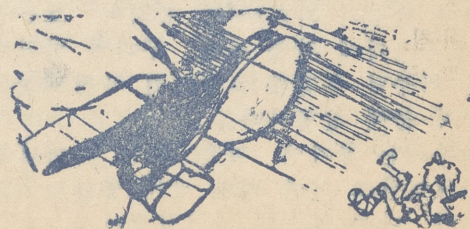
15년간 미국놈과 리 승만의 발굽밑에서
헐벗고 굶주리던 남녘땅 내동무가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어요.

철따라 새교복 새책 내주며
모두가 배우며 즐길 수 있는
로동당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남녘땅 내나이 우리 형제가
아버지, 어머니, 형님과 함께
용감히 싸우며 부르짖어요.

《미제는 당장 물러 가라!》고

평남 강동군 하리 중학교
2년 김 인정

노예로 팔려와

글 오 정삼　　　그림 조 동제

부산항을 떠난 미국 이민선이 남미주 브라질의 싼트스 항구에 닿기는 참으로 몇 달이 걸려서였다.

브라질—그곳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 했다. 그곳에 가면 학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 고아로 떠돌아 다니느니보다 그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밤마다 원장이 말해 주었었다. 더구나 《미국과 리 승만 박사께서 늬들 고생을 생각해서 브라질로 보내는기라!》 하고 원장은 힘을 주어 몇번이고 말해 줬였다.

부산에서 미국배를 타는 날 아침 을롱은 그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 몇몇 아이들과 선창에서 어물어물하고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코'자루가 질룩하게 내려처진 미국놈이 달려들어 을롱의 팔죽지를 냉큼 들어서 배에다 올라 태웠다.

바람 한점 창구멍에 새여 들지 않는 어둠컴컴한 배밑창은 한증탕에 들어 앉은 것보다 더 무덥고 숨이 답답했다.

아침 저녁 그것도 점심은 없이 먹을 거라고 던져 주는 것은 돌덩이 같이 딱딱한 빵 조각 한덩어리에다가 반찬은 《부리홀》이란 구역질 나는 소금물에 삶은 콩뿐이였다.

항로가 브라질로 가까와 올 수록 배밑창은 더욱 따가워졌고 많은 아이들이 벌써 배안에서 병에 걸려 죽어 넘어 갔다. 죽은 아이들의 시체는 온 몸이 털투성이인 징그러운 미국 선원놈들이 개 돼지 죽은 거마냥 마구 태평양 바다'속에 처넣었다. 그럴 때마다 을롱은 그날 《성모 보육원》에서 도망치지 못한 것이 후회되였다.

배는 낯설은 곳으로 자꾸 줄달음만 쳤다.

싼트스항에 내린 고아 (어린 노예)들은 산 설고 물 설은 이국 땅에 완전히 팔려옴을 알았다.

어느 허줄한 사무소에 끌려 들어간 아이들은 각처에서 모여 든 농장주들에게 끌려 가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들은 턱 수염이 노란 놈에게 대'바람으로 어저구 껍질로 만든 채찍인 《발로》에 얻어 맞으며 화물 자동차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발목에 쇠줄로 얽켜서 끌려 가기도 했다.

을롱은 남은 두 아이 꺼꾸리와 돌만이와 같이 눈알이 툭 삐져 나오고 심술 궂게 생긴 주인에게 끌려 브라질 중앙 공원인 밀림 지대를 거쳐 바우루라는 촌에 닿았다.

바우루촌에 닿은 주인놈은 눈알을 부라리며 을롱과 꺼꾸리와 돌만에게 가리네 (학질약)를 먹였다. 바우루촌은 브라질에

서도 가장 학질이 심한 곳이였고 그래서 모기의 이름을 따서 바로 이 마을을 바우루 촌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날부터 주인이 하라는 대로 헛간에서 살게 되였다. 헛간에는 불쌍한 흑인들도 있었다.

어디를 보나 망망한 바다를 이룬 밀림이 우거져 있고 빠나나강 지류인 시뻴건체테강이 이 일대를 진펄로 만들고 있었다.

이곳 농장주는 주로 이 밀림 지대를 새로 일구면서 코코아와 옥수수 농사를 하고 있었다.

주인놈은 왔소라고 했다. 왔소는 흑인 노예를 300 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으며 일본 이민들도 한 10 여명이 왔소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왔소는 본토 사람들은 하나도 쓰지 않고 흑인들과 일본 사람들만 받아 들였다. 그러다가 이번에 조선애들을 셋이나 눅은 값으로 샀다. 왔소는 흑인들의 먹이는 오히려 소와 말먹이보다 눅게 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린 흑인 노예들은 좀 크면 및천을 몇곱절 남겨 가지고 딴 농장주에게 팔아 넘겨 돈을 모으고 있었다.

농장주는 을롱과 꺼꾸리와 똘만에게 그 이튿날부터 땔 나무를 해오게 하였다.

아침에는 사탕도 타지 않은 씁쓸한 코피 한잔만 먹이고 한낮이 기울어서야 역시 돌멩이 같은 빵 쪼각을 먹였고 저녁은 밤이 이슥해서 삶은 통강냉이를 먹였다.

을롱은 브라질에만 가면 잘 입고 잘 먹고 학교에도 간다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꼬아부치든 원장의 그 너구리 같은 얼굴이 눈에 떠올랐다.

《을롱아! 우린 인젠 여기서 정말 죽나부다.》

을롱의 그 총기 있던 두 눈은 굶고 더위에 지쳐 흐리여 있었다.

《꺼꿀아! 도망갈 궁리를 하자!》 하고 을롱은 흐린 눈으로 꺼꾸리와 똘만을 돌아 보고 나서

《미국놈의 앞잡이 원장놈한테 속아 얼마나 많은 애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죽을 곳에 끌려 왔니!》 하고 한숨을 내 쉬였다.

적도 아래의 브라질은 뜨거운 태양이 사시 장철 내리 쪼이고 있다. 숨이 컥컥 막히여 기절하여 쓸어질 것만 같았다.

을롱은 꺼꾸리와 똘만과 같이 날이 안으로 꺼부정하게 휘여든 낫을 가지고 진펄로 나가 땔 나무를 하여야만 했다.

진펄에는 살에 닿으면 쓰리고 아린 독초가 무성하고 가시 투성인 나무들이 꽉 들어 차 있다.

그 속을 헤쳐 들어 가 낫질을 하던 그들은 덤벼 드는 나비를 손으로 쫓으며 힘껏 가시 나무를 찍었다. 그런데 나비들은 쫓으면 쫓을 수록 점점 더 덤벼 들어 이번에는 떼를 지어 대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만 겁에 질려 낫을 던지고 어디라 없이 뛰였다.

《오! 바드렛쇼!》(동향의 사람이란 뜻) 하고 인지오 족의 할아버지가 그들을 따뜻이 맞아 주었다.

인지오 족은 본래부터 브라질에 사는 원주민이다. 포도아인이 처음 브라질을 발견한 당시에 브라질 해안의 안데스 산맥을 넘어와서 살든 종족들이였다. 즉 그들은 뉴기니야의 빠뿌아족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남미주의 《개척자》(미국놈들을 말함)들에게 의하여 대부분 멸족을 당하고 지금은 고원 지대의 밀림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쪼들리면서 살고 있다.

인지오족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여기 나비들은 사람만 보면 짠 냄새를 핥으려고 그렇게 덤벼 든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미국놈들이다 그렇지만 왔소라는 놈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이라 했다.

흑인 노예들은 앓기라도 하면 일은 안하고 먹이는 것이 아까워 무턱대고 죽인다고 말했다.

《이제 너희들도 일을 잘 못하거나 앓으면 죽이거나 딴 데로 돈을 몇곱쟁이 더 받고 팔아 먹을지도 모른다.》고 그 로인은 한숨을 쉬면서 말해 주었다.

을롱과 꺼꾸리 똘만은 주인놈 왔소의 사정 없는 채찍에 내몰리여 매일 나무하느라고 허덕거렸다. 뜨거운 태양이 살을 푹 구워내듯 내려 쪼이는 진펄에서 그들은 나무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은 까스까벨, 쟈라라이까, 쟈라꾸스라는 독사뱀들이 였다. 더구나 이 뱀들을 잡아 먹는 부르뿌라는 뱀은 길이가 20메터도 더 넘는 굉장히 긴 뱀도 득실 거리고 있다.

이 뱀들은 모두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다. 한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새까맣게 되며 죽어 넘어진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시덤불을 헤치며 낫질을 하던 꺼꾸리가 그만 까스까벨이라는 독사 뱀에 물리였다. 뱀에 물린 꺼꾸리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꺼꾸리의 죽음을 슬퍼하며 엉엉 울며 달려온 을롱과 똘만에게 주인놈은 오히려 밥만 뜯기우고 말았다고 하면서 펄펄 뛰였다.

《그애 몸값을 너희 두 놈이 걸머져라 래일부터는 하나에 나무 두 짐씩 해 들여라!》고 발로 채찍으로 갈기면서 꺼꾸리의 몫을 두곱으로 하여 하루에 나무를 둘이서 네짐을 해 들이라고 했다.

을롱과 똘만은 왔소에게 매만 죽게 맞고 밀림 속으로 되돌아 섰다.

그들이 꺼꾸리가 있는 곳으로 다시 왔을 때에는 입'부리가 길죽한 새들이 새까맣게 떼를 지어 짖어대고 있었다. 짖어댄다는 것보다 차라리 짐승이 울부짖는 울음과 같았다.

을롱과 똘만이는 깜짝 놀라 꺼꾸리에게 달려 들려고하자 새들은 그들에게 날세게 덤벼 들기 시작했다. 을롱과 똘만은 잽싸게 낫을 들고 덤벼 드는 새들을 후려 갈기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새들의 입부리에 쪼인 머리와 손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다. 기진 맥진한 그들은 할 수 없이 피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새들은 꺼꾸리를 깨끗이 쪼아 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겨 놓고 어디라 없이 날아나 버렸다. 이 새들은 독가노란 무서운 새였다.

뼈만 남은 꺼꾸리의 시체를 묻고 난 을롱과 똘만은 영영 솟아나지 못할 생지옥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주인놈은 날이 갈수록 더 표독해 갔다. 같이 살고 있는 흑인들에 대하는 것과 똑같이 일을 시킬적마다 매질이였다.

그들은 매일 무서운 고역 속에서 허덕거리였다.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해 갔다. 똘만은 더구나 학질에 걸려 앓고 있었다. 왔소는 똘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왔소는 똘만이가 더 낫지 않으면 죽이겠다고까지 했다.

을롱은 그만 겁이 덜컥 났다. 생지옥 보다 더 지독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를 것을 생각하니 몸이 와들와들 떨리기까지 했다.

으스름달이 비치는 밤이였다.

을롱은 한밤중까지 일을 하고 나서 그 길로 외따른 헛간에서 끙끙 앓고 있는 똘만에게 부스러 빵을 가져다 억지로 먹였

다.

《울롱아! 난 정말 죽을 것 같구나…》

똘만은 기운 없는 소리로 울롱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똘만아! 죽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우리를 이런 데다 팔아먹은 놈들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

울롱은 부산 거리가 머리에 피득 떠올랐다.

리 승만의 징그러운 얼굴이 얼른거렸다. 미국놈들이 지랄하는 꼴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그 날 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도망쳐 나갈 것을 결심했다.

울롱은 쨍쨍 내리 쪼이는 해'빛에 살이 다 타는 듯 했다. 그는 나무를 하다가 하도 더위에 못 견디여 강에 뛰여 들어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그때였다. 한발을 물속에 들여 놓기 무섭게 종다리 살을 콱 물어 뜯기였다. 깜짝 놀라 피가 철철 흐르는 종다리를 감싸 쥐고 쩔쩔 매고 있었다.

《저런! 멋 모르고 강에 들어 갔군!》 하면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인지오족의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서 자기 옷을 찢어 감싸 매 주기까지 하였다.

《어린 것이 낯설은 남의 나라 땅에 팔려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하고 혀를 쯔쯔 차며 《여기 브라질이란 나라에는 강이란 강에 삐라니아라는 아주 무서운 고기가 있다. 그걸 몰라서 그만 종다리를 물렸구나!》라고 삐라니아란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삐라니아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것 없이 마구 잡아 먹는 고기였다.

《얼굴 색도 같고 모양도 똑 같구나! 너희들은 그 무서운 놈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산다. 그 백정 같은 백인놈들은 우리 인지오 부락에 조금도 얼씬 못한다! 그저 그 놈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 인지오 부락 사람들은 가만히 안둔다. 저기 보렴! 그 백인 놈들을 잡아 죽인 저 무덤 말이다.》

울롱은 그 로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과연 낮은 산만한 큰 무덤이 돌무지에 쌓여 있었다.

울롱은 뜻하지 않은 그 로인에게 이끌려 그 날부터 똘만과 같이 인지오 부락에 도망쳐 와서 살게 되였다.

울롱과 똘만은 오늘도 뜨거운 태양이 타 번지는 브라질의 고원 밀림 지대에서 멀리 조국 하늘을 바라보며 외로히 지내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으로 돌아가리라고 그는 결심을 몇번이고 다지고 있었다.

때와 같이 하여 이 순간 조국 남반부 땅을 생지옥으로 만든 미제와 리 승만 역적의 학정에 시달리다 못하여 드디여 터진 남조선 인민 항쟁의 소식을 들었다. 울롱은 가슴이 막 뛰고 두 주먹이 불끈 쥐여졌다. 서글서글한 두 눈에는 불'길이 번쩍거렸다.

울롱은 남조선 거리와 마을에서 자기처럼 굶주리고 허덕거리던 수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을 그려 본다.

남조선 인민 항쟁의 대렬 속에 자기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도 손에 돌과 몽둥이를 거머쥐고 리 승만을 까없은 그 용감성을 울롱은 그려 본다. 그리고 맥아더 동상을 넘어뜨리려고 아이들이 발'길질과 돌질하는 그 함성이 귀에 쟁쟁이 들려 오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말고 나는 살아서 돌아 가야 한다. 돌아가서 나도 그들과 함께 원쑤를 갚고야 말 것이다.》 하고 울롱은 몇 번이고 결심을 다지고 다지였다.

유쾌한 구락부

동요

우리집 토끼

흰 털이 보르르
두귀 쫑긋 흰 토끼
우리 집 토끼는
곱기도 해요.

학교 갔다 돌아와
크로바 안고
토끼 우리 찾아 가면
반색을 해요.

우리들의 외투감 될
귀여운 토끼
온갖 풀 다 먹고
잘도 크지요.

평양시 승호 구역 승호 중학교
3학년 최 길용

웃음 주머니

토끼풀

성호—애 수남아,! 토끼풀 주려 가자.
수남—난 아직 조반을 못 먹었어.
성호—갔다 주고 와서 먹으면 되지 않어.
수남—이따 점심 때 한꺼번에 많이 주자꾸나.
성호—그럼 너두 점심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되지 않어?
수남—?!

검열에만 쓰는 손'수건

어머니—애 경호야 코나 좀 씻고 밥 먹으렴.
경호—저 손 수건은 책가방에 건사해 둔걸요.
어머니—손 수건은 두었다 어데다 쓰는거냐 응? 코도 씻지 않고.
경호—위생 검열할 때 때가 묻어 있으면 비판 받는데요 뭐.
어머니—?!

함주군 풍동 중학교 3학년 리 정자

어디가 틀렸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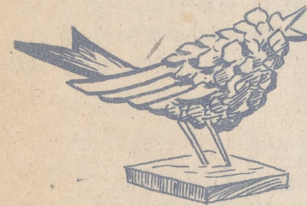
옆의 그림은 천문학적으로 보아서 (동무들이 늘 보아온 경험에서 판단할 때에)어디가 틀렸는가?

야영지에서의 재미 있는 공작

행군 등산 야영지들에서 솔'방울이나 나무 껍질로서 여러가지 장난'감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럼 몇가지 만들어 보자.

솔'방울로 만드는 공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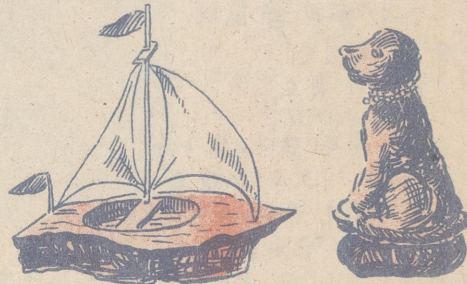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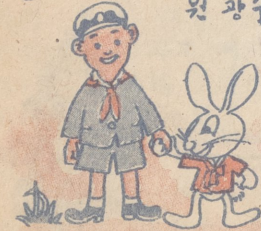
돼지—돼지 몸 뚱이를 만들려면 그와 비슷한 솔'방울을 골라야 한다. 솔'방울의 뾰족한 끝을 돼지 머리로 하고 귀는 다른 솔'방울에서 떼여 낸 비늘로 만든다. 다음 네 개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나무 가지를 짤라 발을 만들어서 꽂는다. 꼬리는 쇠줄을 구부려 만든다. 그리고 소나무 껍질로 주둥이를 깎아서 붙인다.

새—새의 몸 뚱이와 머리는 큰 솔'방울과 작은 솔'방울로 만든다. 주둥이와 발은 나무로 비슷하게 깎아서 만들고 꼬리는 솔'잎을 몇 개 가즈런히 해서 만든다. 이런 부속들을 붙일 때에는 구멍을 뚫고 풀을 칠하여 단단히 붙여야 하며 새의 눈알은 그와 비슷한 나무 열매를 골라서 박아 넣으면 된다. 날개는 단풍나무씨에 달린 얇은 날개를 몇 개 붙인다. 그리고 꼬리와 날개는 소나무 껍질로 얇게 깎아서 붙여도 좋다. 그리고 새의 발은 나무가지로 만든 것을 구멍에 맞추면 된다.

이 밖에도 부엉이, 고기, 나비, 고양이, 학, 인형, 매미, 다람쥐 등을 만들 수 있다. 다음 그림에 의하여 만들어 보라.

소나무 껍질로 만드는 공작

재료는 늙은 소나무 밑둥에 붙은 두꺼운 껍질로 한다.

돛단 배를 만들려면 먼저 소나무 껍질을 배 모형으로 깎고 다음에는 칼로 그 안을 닭알 모양으로 파내여야 한다. 배간 안의 가름'대도 역시 소나무 껍질을 깎아서 맞춘다. 그 다음에 돛과 돛대 기'발을 하나 하나 만들어 꽂으면 된다.

강아지 같은 것을 만들 때에는 실물과 같이 소나무 껍질에 강아지 모양을 그리고 다음 그것을 칼로 깎아 내면 된다.

합창시

잘 싸우라 남녘 땅 아이들아

원 진 판

주창 아이들아 아이들아
싸우는 남녘땅 아이들아
너희들은 정말 용감하구나
너희들은 정말 어린 투사들이구나.

서울의 거리거리를 휩쓸며
부산과 대구의 거리를 휩쓸며
마산과 인천의 거리를 휩쓸은
항쟁의 대렬 그 어디에나
너희들은 분노의 주먹 흔들며 함께
달리였구나.

남 1 원쑤의 총검을 박차며
녀 1 원쑤의 땅크를 짓부시며
남 2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합창 분노의 불'덩어리로 달리였구나,

주창 남녘땅 아이들아
너희들 한창 피는 어린 가슴에
피 맺힌 원한 그 얼마나 컸기에
목숨 걸고 피어린 싸움에 나섰더냐.

남 1 어머니 젖가슴에서 떨어진 그날부터
너희들이 본 것은 어머니의 눈물
너희들이 본 것은 아버지의 한숨

녀 1 나무 껍질 풀 뿌리도 먹을 수 없어
퉁퉁 부운 얼굴로 쓰러지던
원한의 날은 얼마이냐

남 2 그렇게도 가고 싶던 학교
학교 문 앞 빙빙 돌면서도
잡부금 때문에
월사금 때문에
쓰린 가슴 쥐여 뜯기 그 몇번이더냐.

녀 2 책 가방 대신
허리에 둘러찬건 빈 깡통

남 1 학교문 대신
아침 저녁 찾아드는 곳은
한끼 밥 구걸하는 낯설은 집집 문들.

녀 2 구진비 내리는 저녁
찬서리 내려 덮은 새벽
거적대기 둘러 쓰고
거리에서 새우잠 자던 그런 밤은
얼마이드냐.

남 1 미국놈 대포밥으로 끌려가는 형을
붙들고

녀 1 경찰에 끌려가는 아버지를 붙들고

덩굴며 몸부림 치던 원한은
얼마나 컸으랴.

남 2 한창 피는 꽃나이에
웃음 한 번 제대로 웃어 보지 못하
던 세월.

주창 그 세월을 더는 참을 수 없어
그 생지옥을 더는 참을 수 없어
너희들도 싸움에 나섰구나
너희 아버지들과 함께
너희 형님들 너희 누나들과 함께
항쟁의 대렬에 나섰구나.

녀 2 오빠의 원쑤를 갚아주오
피타는 소리로 부르짖으며
대렬 앞장에 달리는
김 주렬 소년의 어린 누이동생.

남 2 《국군들이여 총을 쏘지말라.》
피로 새긴 부랑카드 높이 들고
원쑤의 땅크 향해 맞받아 행진한
서울의 어린 투사들.

남합 아 진정 너희들은 용감한 조국의
아들 딸들.

녀합 자유와 민주 위한 어린 투사
합창 불굴의 어린 수리개들

주창 그러나 아이들아
합창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남 1 쫓겨간 리 승만의 그자리에
또 다른 리 승만이 일어서서
너희들에게 달려들고 있고나

녀 1 승냥이며 악귀인 미제 원쑤가.
피묻은 이'발 더욱 갈며
너희 아버지 오빠들께 달려 들고
있고나.

남 2 미국제 총칼을 휘두르으며
죽음의 쇠사슬을 절렁이며
악에 바쳐 달려 들고 있고나.

주창 아이들아 보느냐
너의 아버지들의 흘린 피 값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오빠와 누나들이 흘린 피의
대'가가 어느 것이냐?

녀 2 그걸 위해 그렇게도 고귀한 피 흘린
자유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남 2 민주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남 1 꿈은, 행복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주창 없구나 아무데도 없구나
있는 것은 예전과 다름 없는
눈물과 한숨
굶주림과 죽음 저주와 원한뿐
녀 2 있는 것은 예전대로
미국제 총칼과 미군의 행패

주창 아이들아 남녘땅 아이들아
모든 너희 불행은

남녘땅에 들어 앉은 미제 원쑤 때
문이다.

합창 남녘땅에 들어 앉은 미제 원쑤 때
문이다.

남 1 미제 원쑤 그대로 두고서는
모든 고통은 예대로 되풀이 되리라
지난 열 다섯해의 저주로운 나날처럼

녀 1 미제 원쑤 그대로 두고서는
거창과 부산의 대학살은
또다시 되풀이 되리라

녀 2 미제 원쑤 그대로 두고서는
너희들의 짱통도 거적대기 잠도
없어 지지 않으리라.

남 1 미제 원쑤 그대로 두고서는
자유도 민주도 바라볼 수 없다.

남 2 미제는 승냥이며 날강도
남녘땅에 생지옥을 펼쳐 놓은 괴수
악귀

주창 싸우라 아이들아 더욱 용감히
미제 원쑤 물러가게 하는
진정한 싸움을

녀 1 미제 원쑤 없어져야만
너희들에게도 웃음과 노래 꽃필 것
이다.

남 1 미제 원쑤 없어져야만
너희들에게 진정한 학교의 문이
열리리라.

주창 미제 원쑤 없어지고 평화 통일 이
룩되는 날
그날에는 우리 북반부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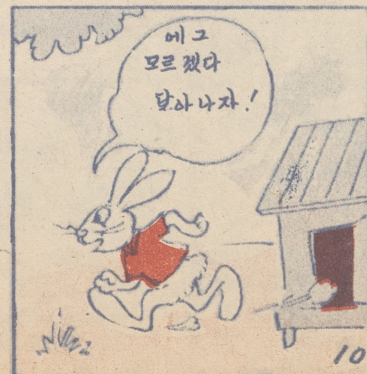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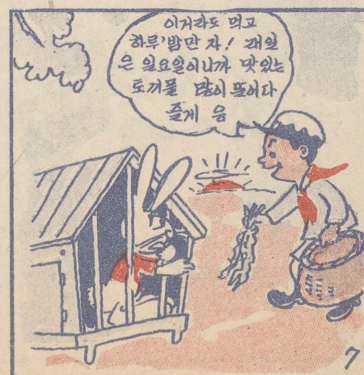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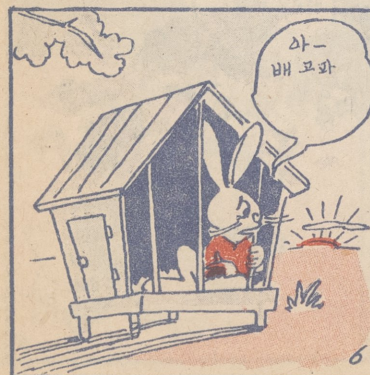
녀 2 월사금도 없고
잡부금도 없고
희망대로 기술 학교도 대학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찾아 오리라.

주창 싸우라 남녘땅 아이들아
남 2 전에보다 더 세찬 불'길로
전에보다 더 세찬 폭풍우로
휘몰아쳐라 온거리와 마을에
녀 1 너희들과 함께
북반부의 모든 소년단원의 들끓는
마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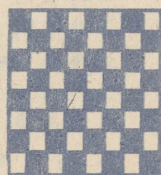
남 1 너희들과 함께
북반부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누나들의 뜨거운 마음이 있
다.
녀 1 너희들과 함께
온 세계 평화 위한 사람들의
성원의 마음이 있다.

주창 너희들이 나가는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길
어둠을 짓부시고 아침해 떠오르듯이
반드시 반드시
영광 찬란한 승리의 해'빛 보는 길

남 1 싸우라 더 용감하게 더 굳세게
녀합 분노의 주먹을 쥐라
남합 결전의 대오를 짜라
주창 자유와 민주 위한 어린 용사들아
굴함 없는 어린 수리개들아
녀합 싸우라 더욱 용감히
남합 싸우라 더욱 굳세히

주창 오 남녘 땅의 아침이 밝아온다.
합창 오 남녘땅의 아침이 밝아온다.

다음호에 계속

어떻게 하면 검정판을 쉬지 않고 다 지나 갈 수 있겠는가?

오른쪽의 그림에서 연필을 떼지 말고 또 흰판을 지나가지도 말고 같은 길을 두 번 지나지도 말면서 검정판을 다 지나 갈려면 어떤 순서로 가야 합니까?

5호 현상 문제 해답

왼쪽의 사진은 황해 제철소 제 1호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흥남 질안 공장입니다.

알아 마친 사람

함북도	김책군 왕덕 중학교	김 증택
함북도	화대군 화평 중학교	최 우석
함남도	영흥군 증양 인민 학교	한 양봉
함남도	고원군 락천 인민 학교	주 태숙, 조 춘옥
강원도	철원군 외학 중학교	김 경일
강원도	고성군 렵성 중학교	조 남득
황남도	벽성군 죽천 중학교	김 영선
황남도	삼천군 도봉 중학교	김 재규
평북도	룡천군 북중 중학교	김 만식
평북도	염주군 중호 인민 학교	전 복원
자강도	화평군 중흥 중학교	윤 병묵
자강도	랑림군 덕우대 중학교	리 종일
자강도	고풍군 룡성 중학교	리 옥선
평양시	승호 구역 파릉 중학교	고 정일
평양시	선교 구역 동신 중학교	박 인숙
량강도	혜산시 춘흥 중학교	조 흥조
량강도	풍서군 삼리 중학교	심 상훈
량강도	갑산군 삼봉 중학교	황 경춘
평남도	안주군 청송 중학교	김 종인
평남도	덕천군 수하 중학교	현 윤도
평남도	북창군 대평 중학교	장 영자
황북도	서흥군 서흥 인민 학교	리 용기
황북도	토산군 룡암 중학교	김 기훈
황북도	연산군 대산 중학교	리 종학
개성시	남자 고급 중학교(초급반)	백 승규
개성시	고려 중학교	리 현숙
개성시	만월 중학교	리 영찬

이것을 아십니까

래일의 일기가 개일려면

△ 아침에 맑게 개였다가 낮에 뭉게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다가 저녁이면 구름도 바람도 다시 사라질 때

△ 낮 기온은 높고 새벽에 기온이 낮아지며 이슬이 많이 맺힐 때

△ 해가 진 후에 마른 안개가 끼며 연기가 하늘로 곧추 올라 갈 때

래일의 일기가 흐리거나 비가 올 징조는

△ 지평선이나 산 등성이를 넘어 온 뭉게 구름이 저녁에 하늘 전체를 덮을 때

△ 저녁 안개가 이튿날 해뜰 때까지 계속 남아 있을 때

△ 해와 달 주위에 둥근 원, 즉 해무리 달무리가 생겼을 때

△ 저녁 노을이 빨갈 때

△꽃들에 곤충들이 많이 매달릴 때

△ 제비가 낮게 떠다닐 때(제비의 량식인 곤충들은 저기압에 눌리여 높이 날지 못한다. 때문에 제비도 곤충을 찾아 낮게 날아 다니는 것이다)

수영을 하려고 할 때는

△ 물에 들어 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

물에 들어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 숨쉬기 운동으로부터 팔 다리와 온 몸을 놀리는 운동을 하며, 손'가락과 발'가락도 주물러야 한다.

만약 준비 운동 없이 물에 뛰여 들어 헤염치다가는 팔다리에 쥐가 일어 날 위험이 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0년 제 7 호 (총129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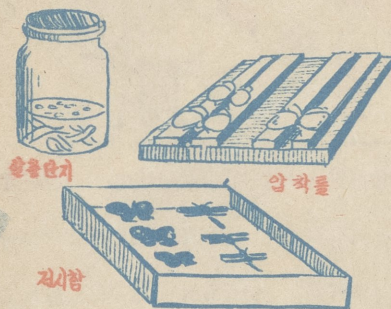
ㄱ—31298 값 25 전 150,000부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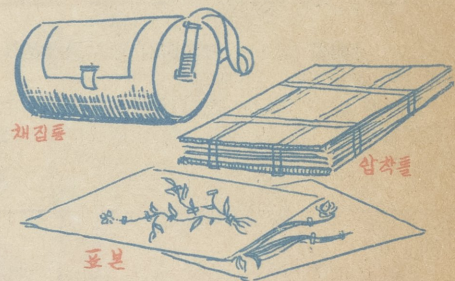
곤충 채집법

곤충은 그 모양이 상하지 않도록 포충망으로 잡아야 한다. 잡은 곤충은 곧 살충 단지에 넣어 마취시켜 죽인다.

살충 단지는 아가리가 넓고 마개가 있는 병이면 된다. 병밑에 대패'밥이나 솜을 깔고 몇 방울의 에칠 에텔이나 또는 초산 에텔을 치고 마개를 꽉 막아야 한다. 이 단지 속에 곤충을 넣으면 마취되여 죽어 버린다.

잡은 곤충들 중 갑충들은 바늘을 꽂아서 말리운 다음 곧 전시함 안에 넣어서 표본을 만든다.

나비는 미리 날개들을 잘 펴서 곤충 압착틀에서 말리워야 한다. 압착틀은 매끈하게 대패질한 두개의 오리대를 널판자 우에 부치거나 널판자에 홈을 치면 된다. 이 홈 사이에 나비를끼우고 량쪽 날개를 바늘로 고정시킨다. 이렇게 하여 약 10 여일간 말린 다음 표본함에 보관한다.

식물 채집법

표본을 만들기 위해 식물을 채집할때에는 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꽃삽으로 뿌리까지 조심히 파서 흙을 털어 채집통에 넣는다.

행군에서 돌아오면 곧 압착틀에 끼워 말리워야 한다. 이때 식물의 뿌리, 줄기, 잎사귀들이 밖으로 나오거나 모양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압착틀에 식물을 끼울때 한쪽에 4~5매의 신문지를 깔고 하나의 식물을 놓은 다음 2~3매의 신문지를 끼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5매의 신문지를 놓고 압 착틀을 끈으로 졸라맨다. 그리고 해'빛이나 난로'가에서 말린다. 처음 2일간은 식물의 색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른 종이를 자주 갈아 주어야 한다.

죄다 마른 다음 표본 대지에 식물을 놓고 가는 종이 오리로 곱게 부치고 아래와 같은 표를 부친다.

식 물 명	
채집 날자	
채집한 곳	
채 집 자	

① 야영 생활을 즐기던 영옥이가 갑자기 앓아서 순남이가 병원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의사는 전화기 앞에 나타난 순남이의 얼굴과 영옥이의 앓는 모습을 보고 《몹시 위급한걸》하고 서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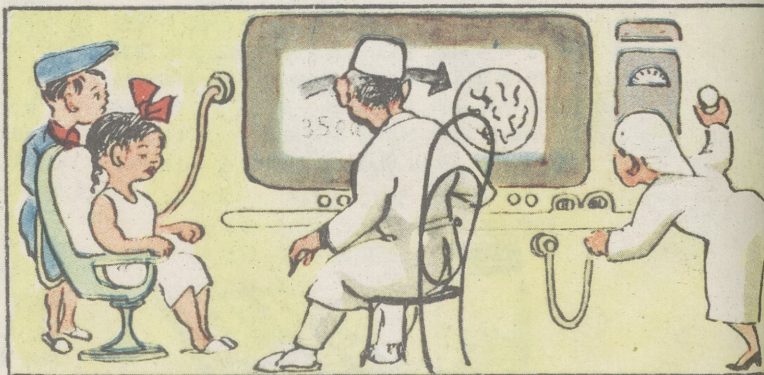
② 《순남이와 영옥이가 어느 산간에 있을가?》 의사는 라디오 탐지기의 스위치를 눌렀다. 탐지기는 영옥이와 순남이가 있는 곳을 척척 가리켜 주었다.

③ 운전수가 없어도 차는 저절로 병원으로 달려 갔다. 라디오 전자기는 운전수 대신 차를 조종해 주기 때문이다.

④ 의사는 영옥이의 병을 진찰하기 위해 전자 송신기를 삼키게 했다.

영옥이가 삼킨 송신기는 데레비죤 장치에 병 증상을 보여 주었다.

《영옥아! 너 위탈이 났댔구나》 곁에 있던 순남이가 데레비죤을 보고 속삭였다.

⑤ 《야! 우리 조선팀이 잘 하는구나》 영옥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데레비죤을 통해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축구 시합을 구경하고 있다.

⑥ 순남이와 영옥이는 야영 기간에 있었던 재미 있는 소식들을 새의 가슴에 송신기를 달아 멀리 있는 동무들에게 전하였다.